



▲남자부 헤비급 결승에서 전 국가대표인 동아대의 문대성(왼쪽)에게 아깝게 패배하는 한성고의 송태희(오른쪽).

전국남녀 우수선수 선발대회 분석

국가대표 몰락하고 경희대 · 용인대 · 한성고 돌보여

우수선수 선발대회는 보통 연말에 치러지며 그 해에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에게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우수선수 선발대회의 이러한 특징은 그 기량의 수준이 상당할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참가자격 제한이 없는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보다도 우승하기 어려운 대회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 그래서 이 대회에서 1, 2위에 입상한 선수들에게는 다음 해 연초에 있는 국가대표선발 최종전에 바로 참가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진다.

우수선수선발 대회란?

실질적으로 이 대회는 국가대표선발 예선전이나 다름이 없는 셈.

전국체전의 경우 시도지부 예선전을 거친 시도대표 선수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그 기량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인데, 하물며 그 해의 전국규모대회 입상자들만 참가하는 대회라면 그 기량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것인지는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태권도 경기기술의 최신 경향이 공금할 경우 연초에는 국가대표선발 최종전을, 연말에는 우수선수 선발대회를 참관하면 되겠다.

'97 전국 남녀 우수선수 선발대회(11월 5일~7일, 국기원)는 국가대표선수들의 몰락, 경희대와 용인대의 상승, 한체대의 퇴조, 고교 신생팀인 한성고의 두각 등이 눈길을 끌었다.

경희대는 남녀 전 체급에서 8명, 용인대는 7명의 입상자를 각각 냈으나 한체대는 4명에 그쳤다.

고교팀으로 신생팀인 한성고가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냈다.

한성고는 태권도 명문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스카우트하지 못했으나 평범했던 선수들을 하드 트레이닝으로 2명이나 이번 대회에 입상시켰다.

이 대회의 비중을 감안할 때 신생팀으로서는 꿈도 못 꿀 전적이다. 특히 헤비급의 송태희는 결승에서 전 국가대표인 문대성을 맞아 3-4의 거의 대등한 경기를 벌여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중학교 시절 대부분의 선수들이 취미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부도 상당히 잘해, 공부도 운동도 뛰어난

늑막염 걸린채 2위 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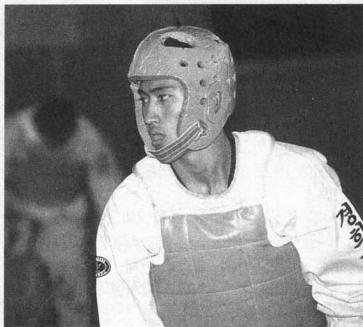
경희대 3년 김정수

인간의 정신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과거 다리가 부러진 채 세계대회를 제패했던 한 재구의 뒤를 이어 또다시 그에 못지 않은 투지를 불태운 선수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현재 경희대 3학년에 재학중인 김정수(22).

김정수는 현재 늑막염에 걸린 상태다. 늑막염은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되는 중병으로 심한 운동은 절대 금물. 그런데 그 몸으로 투기종목 중에도 험하기로 소문난 태권도경기에 출전. 2위까지 차지했으니 놀라운 일이다. 김정수는 늑막염 치료를 위한 약물복용으로 인해 장기능까지 극심하게 나빠져 있는 상태. 경기 도중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표정은 사정을 아는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대체 왜 때문에 이렇게 태권도에 집착하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수는 "태권도가 좋기 때문에..."라고 짧막하게 대답하고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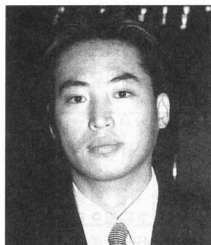
남자부 라이트급으로 출전한 김정수는 강자들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지병으로 인한 체력약화와 경기중 다리에 입은 부상으로 국가대표 2자인 상무의 김병욱에게 기권패했다.

신병을 무릅쓰는 김정수의 출전이 과연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 정서적 하나는 높이 사야겠다는 것이 지켜본 이들의 중론.

한성고 특유의 전통을 세워 나가겠다고 한성고 코치인 전문희 (29)씨는 말했다. 올해 대회의 또다른 특징은 현역 국가대표선수들의 몰락이다. 올해 국가대표 최종평가전서 탈락했던 남녀 대표 1, 2전 선수 14명(2명 불참) 가운데 상무의 김병욱과 인천시청의 신동선

을 제외하곤 모두 입상권서 탈락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남자부 편급 2자인 박희강(한체대)이 4강에서 문성고의 최원희에게 0-2의 완패를 했고 플라이급의 최만용(한체대)은 같은 학교의 민병석에게 16강서 기권패했다.

경희대 8명, 용인대 7명이나 입상



▲이번 대회에 총 8명을 입상시켜 우수지도자상을 받은 이경호 경희대 코치.



▲우수지도자상을 받은 고양중고 오재용 코치. 오코치는 고양중고를 10여년을 맡아 많은 국가대표선수들을 키워왔다.

밴텀급의 2전 황병련(성균관대)도 청주대의 홍병석에게 4강에서 3-4로 패했고 페더급의 1전 신준식은 분당고의 이원재에게 격전 끝에 3-5로 패해 파란을 일으켰다.

이원재는 성남 은행중학교 출신의 고등학교 2학년인 선수로 올해의 중고연맹대회에서 2위를 한 것을 빼놓고는 별다른 전적이 없는 선수. 그러나 그 동안 하드 트레이닝이 열매를 맺어 국가대표 1자인 신준석에게 다운까지 뺏으며 당당히 승리했다. 그러나 이원재도 4강서 만난 용인대의 박상규와 4-4의 접전 끝에 우세 판정으로 아깝게 패했다.

라이트급의 2전 김병욱(상무)은 현역 대표선수 중 유일하게 예선부터 평균 4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우승을 하는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어 갈채를 받았다.

중학생이 국가대표 이겨

역삼중 3 박호주양

서울 역삼중학교 3학년인 박호주(16)가 올해 국가대표 2진으로 선발된 한국체육대학의 박정희를 꺾었다.

여자부 편집 예산에서 중학생의 신분으로 현역 국가대표선수를 꺾은 박호주는 4강 문턱에서 은광여고의 강지현에게 7-3으로 완패. 그러나 편집에서 우승한 고등학교 선수인 강지현에게 중학생이 선전을 펼치며 3득점이나 올린 것은 주목할 만한 전적이다.

"중학교 때부터 이처럼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니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대표선수는 따놓은 당상"이

라고 스승인 김원기 코치(43)는 기염.

중학생으로 국가대표를 꺾은 기본이 어떨느냐는 질문에 박호주는 "어떻게 이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며 수줍어 했다.

사실, 박정희는 상당히 방심한 상태였는지 모른다. 1점의 선취점을 올리고 회피 위주의 경기를 시도하던 박정희는 끈질기게 공격해 오는 박호주에게 1점을 내준 후, 이를 만회할 만한 득점을 못 올리고 결국 우세판정으로 패배했다.

박호주는 재작년과 작년 문화체육부장관기대회에서 2연패를 했고, 올해 소년체전에서도 2위를 한 중등부 플라이급의 강자.

과거에 중학교 시절부터 대표선수들을 꺾었던 이는 현재 삼성물산에 소속되어 선수생활을 하는 전 국가대표 원선진(23, 당시 수성여중 재학)이 있다.

웰터급과 미들급의 대표선수인 양원철과 김민우는 경기에 불참했다. 해비급의 2진 빙원철은 16강에서 한 체대의 문용철에 감점패를 당했다.

여자부의 경우는 단 한명의 대표선수도 우승을 하지 못해 여자 태권도선수들의 기량이 매우 평준화되어 있음을 잘 보여줬다.

라이트급에서 3위를 한 2진 대표선수 신동선은 제의하고는 대부분 16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편집의 2진 박정희는 중학생에게 패배하는 치욕을 당했고 플라이급의 서미라는 체중 조절 실패로 실격 패했다.

밴텀급의 2진 전남수는 경희대의 강호 이지은에게 0-4로 완패를 당했고, 페더급의 2진인 노장 진용순은

경기를 예산부터 기권했다.

라이트급의 신동선은 준결승에서 분전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가대표인 고양중고의 이선희에게 3-5의 판정으로 분패했다.

웰터급 2진 안근아는 예산전에서 동아대의 김수현에게 2-4로 완패를 당했고, 미들급의 박선미는 부상으로 예산전서 경기를 포기, 기권했다.

해비급의 권지희는 충남체고의 김순주에게 4-5의 접전 끝에 패했다.

이번 대회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내년도 대표선발전은 신인선수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낼 것인 것 이 보 는 이들의 중론.

특히 남자 페더급의 이두전(경희대)과 라이트급의 김정수(경희대), 웰터급의 류근무(경희대), 그리고 해비급의 고교생 선수 송태희(한성고)는 주목의 대상.

여자부의 경우는 편집의 강지현(은광여고)과 장정은(경희대), 플라이급의 오성숙(고양중고), 밴텀급의 이지은(경희대), 웰터급의 김미영(고려대), 해비급의 윤현숙(송곡여고) 등이 주목되고 있다.

웰터급 양혜정(한림여실고)과 신세연(경성여실고)도 기량만 좀 세련된다면 위협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예상.

해비급의 신경현(경희대)은 정명숙의 뒤를 이을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평균 4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이번 대회를 우승한 신경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고 득점력이 있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년도 대표선발전서는 경희대 선배인 정명숙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희대의 이경호 코치(28)는 내다봤다.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성신여대의 전기숙(왼쪽)과 경희대의 류근무.

전국 남녀 우수선수 선발대회 입상선수 명단

대회기간: 1997년 11월 5일 ~ 7일

남자부

체 급	등 위	입상자명	소 속
편급	1 위	박동중	충남대
	2 위	조성민	경희대
	3 위	최연호 명재진	문성고 풍생고
플라이급	1 위	유영택	용인대
	2 위	민병석	한체대
	3 위	박희철 김대룡	성균관대 한성고
밴텀급	1 위	김건일	(주)보성
	2 위	이동철	용인대
	3 위	홍범석 김천규	청주대 한체대
페더급	1 위	이두건	경희대
	2 위	김재관	송고고
	3 위	이원재 조승원	문당고 용인대
라이트급	1 위	김병욱	국군체육부대
	2 위	김정수	경희대
	3 위	김선진 이준희	성균관대 용인대
웰터급	1 위	류근무	경희대
	2 위	장중오	지하철공사
	3 위	오선택 고성석	선인고 청주대
미들급	1 위	장순호	경희대
	2 위	국춘근	경희대
	3 위	강동국 최희성	국군체육부대 한체대
헤비급	1 위	문대성	동아대
	2 위	손태희	한성고
	3 위	박형래 심재섭	용인대OB 국군체육부대

여자부

체 급	등 위	입상자명	소 속
편급	1 위	강지현	은광여고
	2 위	장정은	경희대
	3 위	이은주 이정윤	심원고 용인대
플라이급	1 위	오성숙	고양종고
	2 위	이선영	한체대
	3 위	김보인 이지현	경희대 관악정산고
밴텀급	1 위	이지은	경희대
	2 위	김병희	용인대
	3 위	박현기 이승의	한체대 성서체육관
페더급	1 위	전기숙	성신여대
	2 위	윤명숙	인천시청
	3 위	홍영재 정미나	경성여실고 리라공고
라이트급	1 위	이선희	고양종고
	2 위	이정숙	용인대
	3 위	정미향 신동선	목원대 인천시청
웰터급	1 위	김미영	고려대
	2 위	정진영	경희대
	3 위	신세연 양혜정	경성여실고 한림여실고
미들급	1 위	이희영	용인대
	2 위	강혜진	성신여대
	3 위	하민숙 이옥미	상명대 성신여대
헤비급	1 위	신경현	경희대
	2 위	윤현숙	송곡여고
	3 위	박선혜 김순주	용인대 충남체고

최우수선수상

〈남자부〉

류근무(경희대)

〈여자부〉

전기숙(성신여대)

우수지도자상

이경호(경희대)

오재용(고양종고)

대한태권도협회 주최 · 문체부 후원

재미동포 사범 100명 초청

미주에서 태권도 보급에 힘쓴 사범 100명이 대한태권도협회 초청으로 고국의 발전상과 국내 태권도계의 근황, 종주국 협회의 사업근황 등을 살필 기회를 가졌다.

문화체육부가 후원한 이 초청사업은 지난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에 걸쳐 치러졌다.



▲미국에서 활약중인 태권도 사범 100명이 문화체육부 후원으로 대한태권도협회의 초청을 받아 고국을 방문,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했다.

9일 도착, 등록을 마친 미주 사범들은 다음 날인 10일 국기원에서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와 만나 미국 현지에서의 태권도 각종 애로사항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10일 오후에는 워커힌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그 직후에 태권도협회장 주최의 만찬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태권도협회 이흥주 부회장은 “오늘날 태권도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합쳐져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조출한 행사로 여러분들의 노고를 모두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조국이 여러분을 잊지 않음을 확인하는 작은 기회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11일에는 문화체육부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의 사업설명회가 있었고, 12일에는 통일전망대와 제 3땅굴 견학을, 13일에는 문화체육부장관

의 격려 오찬이 있었다.

14일에는 개인시간을 가졌고, 15일에는 미국태권도협회의 답례 만찬과 함께 대한태권도협회장과 문화체육부장관 명의의 감사패 증정의 시간을 가졌다.

이런 일정에서 보듯 이번 사업은 순수하게 해외사범들의 사기 진작과 사명감 제고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필곤 대한태권도협회장은 환영 축사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한국문화의 세계화라는 위업을 달성하신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라고 했으며 이상철 USTU(미주태권도협회)회장은 “태권도의 고향이자 우리의 조국인 한국이 우리를 잊지않고 이렇게 불러주니 감개무량합니다. USTU 소속이 아닌 개인적 조직으로 활동하는 사범들과 약간의 불협화음

■ 참가사범명단

지 역	성 명	지 역	성 명	지 역	성 명	지 역	성 명	지 역	성 명
미시간주	이광걸	아이오아주	박웅진	메사추세츠	김영곤	캘리포니아	권시민	캘리포니아	강병원
콜로라도주	장기수	오하이오주	김병현	워싱턴주	윤학덕	캘리포니아	김창길	캘리포니아	김준현
텍사스주	김인선	콜로라도주	정철우	조지아주	김낙준	인디애나주	채규영	캘리포니아	김영승
텍사스주	김기덕	뉴저지주	박두복	미시간	정 화	네바다주	윤동욱	캘리포니아	이종환
텍사스주	이희섭	테네시주	홍성현	미조리주	최복성	알라바마주	윤남규	캘리포니아	남상덕
텍사스주	박원직	노스캐롤라	남궁영석	미시간주	정태진	루이지애나	최종현	캘리포니아	전영인
텍사스주	이재석	뉴저지주	박연희	콜로라도주	이상철	미시간	홍순필	캘리포니아	월리암김
텍사스주	임영선	뉴저지주	김을수	일리노이주	김갑동	워싱턴주	김광웅	캘리포니아	신용섭
텍사스주	정진송	뉴욕	박국성	버지니아주	최웅길	오�클라호마주	이창림	캘리포니아	신동기
텍사스주	김진원	캘리포니아	조시영	미시간주	이창황	뉴멕시코주	김용택	캘리포니아	박종걸
텍사스주	최신일	일리노이주	김정길	메사추세츠	조재휴	펜실베이니아	신동환	뉴욕	정순기
알라바마주	김일호	일리노이주	이준희	메사추세츠	이강원	미네소타주	김일근	뉴욕	이문성
알라바마주	정상복	일리노이주	정효철	미시간	길용섭	메사추세츠	김경원	미시간	김재영
조지아주	이덕성	플로리다주	송지영	미시간	박건수	노스캐롤라	이강석	워싱턴	황선두
조지아주	김문철	플로리다주	서중근	버지니아주	배성훈	미주리주	노영철	워싱턴	고형학
조지아주	김수진	플로리다주	오주열	버지니아주	김순호	미주리주	노영수	워싱턴	나 후
메릴랜드	이광현	플로리다주	정종웅	버지니아주	성준경	위스콘신주	이재규	워싱턴	한재희
메릴랜드	최윤희	캘리포니아	박연환	아이오아주	김정은	일리노이주	이중수	워싱턴	이태순
메릴랜드	최은일	플로리다주	김문규	오레곤주	최태홍	일리노이주	정성철	캘리포니아	권진용
메릴랜드	남정구	테네시주	신승의	오레곤주	최홍규	일리노이주	윤구민	캘리포니아	민경호

은 있으나, 그들도 분명히 나름대로 태권도에 공헌해 왔는데 같이 못해서 아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뒤를 이어나갈 재미 2세 태권도인들에 조국의 얼을 물려주어 종주국을 잊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태권도 선수출신으로 문화체육부 차관보를 지낸 바 있는 최창신 2002 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저는 태권도계 외부에서 일을 했지만, 단 한

명만 초청하여 그 수가 너무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미국내의 수 많은 한국사범들을 대표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부에서 입안하여 대한태권도 협회가 기획, 운영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해까지 문화체육부 차관보로 재직하던 최창신 차관보가 당시 '96 한민족대전에서 교포사범들을 30여명 초청했던 것을 계기로 97년 올해에는 100명의 재미유공사범을 초청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앞장

번도 태권도를 잊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분을 뵈니 다시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뉴저지주에서 온 김을수(45) 사범은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내에서 우리를 이처럼 기억해주고 불러준 것이 고맙다. 특히 문화체육부에서 이 사업에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전에 없던 일로 이젠 정부에서도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야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 같아 흐뭇하다. 물론 100

할 기본계획을 수립, 지시했던 것.

당시 최 차관보는 30여명의 사범들과 면담하여 그분들이 고국에 유공사범으로서 초청된 것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과 사기진작 등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고 사업확대를 마음먹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앞으로 이 사업을 정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와 USTU 및 세계연맹 등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규모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고부 잘싸워 서울 종합우승 전국체전 동메달 13개의 경남 준우승

이번 전국체전은 5체급에서 우승한 여고부의 선전에 크게 힘입은 서울이 종합우승했다.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살린 경남은 전체종목별에서 동메달만 무려 13개를 획득, 2위를 마크했다.

전체종목별에서 너댓개씩의 금,



▲김무천 협회 운영부장

은, 동메달을 고루 획득한 전남이 3위를 했다.

지난 대회에서 1위를 했던 강원도는 12위로 밀려났다.

이번 체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김무천 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에게 들어보았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강한 팀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그만큼 많다. 작년에 준우승한 팀이다.

전국적으로도 좋은 신체조건을 가진 여자 선수들은 많지 않은데 서울은 상대적으로 많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자선수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것이 이번에 여자 고등부 5체급을 석권한 이유다.

선수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크게 앞서는 편은 아니고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그저 평균적 수준쯤 된다.

일반부의 경우 학교팀 외의 기타 연고에 의해 이적이 가능하지만, 남녀 고등부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학교팀 소속으로 출전하게 되므로 인구가 많은 서울이 상

당히 강한 것이다. 2위인 경남은 주축측으로서 음양으로 많은 혜택을 보았다. 어느 종목이건 그렇지만 홈그라운드 이점은 상당히 크다.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보너스 외에도 소속 선수들의 경기장 적응이 빠르고, 응원단이 수적으로 우세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전통적인 강팀이다. 비교적 좋은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특히 재정적인 지원이 다른 시도지부 보다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몰리는 편이다.

다른 시도지부 출신이 출신지를 변경해서 출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학팀이나 실업팀

남자 일반부 이안호 이번 체전, 유일한 2연패



▲이안호

남자일반부에서 이번 전국체전 유일의 2연패가 나왔다. 국가대표선발전전을 제외하고는 국내태권도경기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국체전 선수 두번연속 우승을 하기로 결심한 이안호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지난 96년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졸업한 이안호는 90년 세계대학 태권도선

수권대회 우승 그리고 90년과 93년 대학연맹 선수권대회를 두번에 걸쳐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왕년에 번처 스타일의 선수로 약명이 높아 많은 선수들을 두려움에 떨게했던 악동 박병익을 무려 5-1의 큰 점수차로 따돌려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경남체육회에 소속되어 선수생활을 하면서 더욱 원숙해졌다는 평을 듣는데, 그것은 훈련량을 스스로 조절하여 자신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얼굴발차기와 몸통발차기 모두에 능숙하고 밀어차기가 훌륭한 편.

이번대회 때는 공중에서 앞돌려차기를 3번 차는 3단 내려차기를 여러번 구사하여 보는 이들을 감탄시켰다.

대표선수들 체전 참가 과연 바람직한가?



▲대한태권도협회 기술
심의회 황춘성 의장

세계대회 한달 앞둔 대표선수들의 체전참가, 과연 바람직한가?

세계선수권대회를 한달 앞둔 대표선수들의 전국체전 참가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부상의 위험 뿐 아니라 심리적 피로의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지부 측은 1년에 한번 있는 전국체전에

내보낼 선수들에게 1년 내내 물심양면으로 지원함으로써 전국체전에서의 팀성적 향상을 꾀하고 있으나 대표선수 출전을 고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번 전국체전 태권도 경기를 총지휘한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황춘성 의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면담>

큰 국제경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전국체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참가를 허용하는데 따른 우려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부상의 위험이고 둘째가 패배할 경우 사기저하의 문제다.

사실 부상의 위험만 없다면 정신, 기술의 최종결산이란 의미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부상의 위험은 경기에서 뿐만 아니라 훈련 할 때의 가벼운 스프링 때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용 보호용구의 발달로 심각한 큰 부상의 위험은 별로 없다.

다만, 허벅지 등을 상대의 발에 의해 찍히는 등의 타박상이나 상대의 돌출부를 가격하다가 입게되는 발등의 타박상 등은 흔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는 훈련시의 것보다 약간 심한 부상에 불과한 것으로 한 열흘 정도 쉬면 대부분 낫는다.

패배시의 사기저하 문제는 전국 체전의 수준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전국체전은 국내대회 중 최고의 것으로 그 어느 대회보다도 뜨거운 열기가 넘치고 그 경쟁성이 지나칠 만큼 높다.

세계대회보다도 전국체전이 게임에 따라서는 기술 수준면에서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배했다고 세계대회에 나가 질 이유도 없고 사기가 저하될 이유도 없다고 본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표선수로 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고함을 대표하여 애항심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지상주의의 시대가 아닌 이상, 시대적 흐름에도 걸맞지 않다고 본다.

항로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 국가의 명예도 중시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의 연고 또는 출생지가 아닌 부모의 고향, 즉 본인의 원적이나 본적의 연고에 의해 출전하므로 이것은 규정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

작년에 종합우승을 했던 강원도가 12위로 밀려난 것도 재정적인 지원의 취약성이 상당한 몫을 차지했다.

그리고 도내에 우수한 학교팀들이 많지가 않아 선수자원이 부족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

우수한 고교 및 대학 선수들이 졸업 후 다른 타 시도에 있는 대학 또는 실업팀에 들어가서 그곳으로 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다. 작년의 경우 우수한 것은 주최측이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기량도 전반적으로 매년 발전하고 있다.

이번에도 대표선수들이 대부분 참가하여 경기의 질과 권위를 유지해 주었다.

이번 체전 때 지난 수 년간 많이 좋아졌던 경기장 매너가 다시 나빠진 것은 민망한 일이다.

경기장에서 제자와 후배들이 보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태권도계의 앞날을 생각하는 태권도 지도자라면 심한 어필로 경기를 중단시키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위를 차지한 서울과 2위의 경남, 3위의 전남.

제79회 전국체전 시도별 종합전적

제자에게 패배선언



장수영 심판

전국체전 태권도 4일째 여자일반부 웰터급의 준결승. 제주도의 이정숙과 전남의 조미레가 격돌. 이정숙이 3-2로 겨우 승리했다. 이정숙의 손이 올라가자마자 전남팀 코칭스태프들의 어필

이 있었고 특히 경고를 조미레에게 여러 차례 주어 불리하게 만든 주심에게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항의를 했다. 이때 주심의 한마디로 모든 항의는 순식

간에 사그라지고 말았다.

“조미레는 바로 내 제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나니까?”

장수영 주심(36)은 조미레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성남의 단대체육관에서 직접 태권도를 지도해준 매우 정든 사이.

제자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게 심판을 보았다는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칭 자기와 연줄이 있는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지기 쉬운 것이 인정인데도 제자에게 오히려 엄한 판정을 내린 장수영 심판의 자세는 판정말뚝이 적지 않았던 전국체전에서 청량제 구실을 했다.

전국체전 입상선수

남 고 부

남 대 부

남자일반부

체 급	등 위	입상자명	소 속	시 도	입상자명	소 속	시 도	입상자명	소 속	시 도
핀	1위	정우대	서울체고	서울	김광호	한체대	전남	박정석	전북협회	전북
	2위	최연호	문성고	광주	조성민	경희대	경남	임호진	영천시청	경북
	3위	이형중	대전체고	대전	김병태	웅인대	경기	정주철	(주)보성	대구
플라이	1위	김중성	여수고	전남	류인평	청주대	충북	전민준	보령시청	충남
	2위	소우락	서울체고	서울	이기철	경희대	경북	최용훈	전남협회	전남
	3위	정영훈	개곡고	부산	박명훈	충남대	대전	진승태	삼성물산	경남
밴텀	1위	최홍식	문성고	광주	김영훈	웅인대	경기	이정원	전주시청	전북
	2위	이동연	선신고	인천	민병식	한체대	서울	서상훈	제주협회	제주
	3위	김의철	문성고	광주	정대영	한체대	전남	김현용	영천시청	경북
페더	1위	안광석	경남체고	경남	김천규	한체대	서울	김건일	(주)보성	대구
	2위	정세영	동성고	서울	장원모	경희대	경남	고대휴	삼우	제주
	3위	박민호	전주공고	전북	홍범식	청주대	충북	고동환	전북협회	전북
라이트	1위	김동연	남녕고	제주	유원철	청주대	충북	이안호	경남체육회	경남
	2위	정용우	방어진고	울산	유용진	동아대	부산	김동범	제주협회	제주
	3위	이태웅	금정고	부산	노현구	한체대	서울	장기원	인천협회	인천
웰터	1위	정우열	여수고	전남	마천국	동신대	전남	성대중	춘천시청	강원
	2위	김정선	대전체고	대전	김동현	경희대	전남	고창현	광주협회	광주
	3위	이재신	광성고	인천	심기선	경희대	경기	김현철	전남협회	전남
미들	1위	이현식	충남체고	충남	최대웅	웅인대	경남	한영용	영천시청	경북
	2위	정지훈	경북체고	경북	김정수	경희대	전북	정광재	삼성물산	서울
	3위	김정기	대전체고	대전	고상석	청주대	충북	김병욱	국군체육부대	전북
헤비	1위	김교식	서울체고	서울	이광식	경희대	제주	정중호	전남협회	전남
	2위	성지민	동천고	부산	김부권	조선대	광주	신경수	보령시청	충남
	3위	김재광	경남체고	경남	정재곤	한체대	전북	임재철	춘천시청	강원
미들	1위	박천덕	개곡고	부산	김민우	동아대	서울	박재덕	영천시청	경북
	2위	신원일	경북체고	경북	김경훈	한체대	서울	방영진	춘천시청	강원
	3위	김상수	경남체고	경남	장우영	경상대	경남	정주식	삼우	경남
헤비	1위	조원철	서울체고	서울	최원집	충원대	전남	김동민	전주시청	전북
	2위	이석훈	금정고	부산	문대성	동아대	부산	김제경	삼성물산	울산
	3위	홍광훈	문성고	광주	이관국	한체대	강원	박철래	서울시협회	서울
헤비	1위	한창훈	천안농고	충남	정강국	청주대	충북	하태경	경남협회	경남
	2위	김민수	서울체고	서울	정정호	계명대	대구	김광수	춘천시청	강원

제79회 전국체전 시도별 종합전적

여 고 부

여자일반부

체 급	등 위	입상자명	소 속	시 도	입상자명	소 속	시 도
핀	1위	강지현	은광여고	서울	장정은	경희대	충남
	2위	정하나	인천북공고	인천	정선영	상명대	강원
	3위	박현미	군산중앙여고	전북	박성희	부산외대	부산
플라이	1위	최미애	고령여중고	경북	양소희	한체대	충남
	2위	최유진	송곡여고	서울	이순영	광주체육회	광주
	3위	박효진	충북체고	충북	윤송희	한체대	경남
밴텀	1위	박정은	리리공고	서울	이지은	경희대	전북
	2위	강진희	목포상고	전남	원선진	삼성물산	광주
	3위	이명진	남녕고	제주	황은숙	인천시청	인천
페더	1위	이서희	강원체고	강원	오은하	용인대	경남
	2위	정재은	한림여실고	서울	윤명숙	인천시청	인천
	3위	김정은	목포상고	전남	이승민	삼성물산	전남
라이트	1위	이상옥	경남체고	충남	조재영	제주도협회	제주
	2위	김혜옥	충남체고	충남	주혜원	한체대	서울
	3위	이선희	고양중고	경기	신동선	인천시청	인천
웰터	1위	차지혜	송곡여고	서울	신현순	용인대	충남
	2위	추현경	경남체고	경남	서은미	용인대	전북
	3위	김희영	충북체고	충북	박광순	조선대	광주
미들	1위	김유라	중앙여고	전북	이정숙	용인대	제주
	2위	김희영	금정여고	부산	안근아	한체대	전북
	3위	황학순	경남체고	경남	조항미	인천시청	인천
헤비	1위	전경아	문산중고	경기	신은정	춘천시청	강원
	2위	박은희	은광여고	서울	박선미	춘천시청	강원
	3위	황미선	충남체고	충남	박은선	인천시청	인천
헤비	1위	서영하	효원고	경기	김미영	고려대	서울
	2위	육준애	금정여고	부산	이희영	용인대	부산
	3위	박연정	리리공고	서울	정명숙	경희대	전남
헤비	1위	윤현정	경북체고	경북	김윤경	상명대	서울
	2위	남소영	사천여자정산고	경남	신경현	경희대	경기
	3위	고경한	국체고	광주	주경천	인천전문대	인천

■ 전국체전 태권도경기 특점 순위표

순 위	시 도 명	금	은	동	4위	총 합 득 점	지난해 순위
1	서울	7	7	8	8	2590.59	2
2	경남	1	3	13	23	1947.06	8
3	전남	5	5	4	12	1875.29	9
4	전북	4	1	8	10	1536.47	5
5	부산	4	3	5	10	1532.94	11
6	광주	2	4	5	12	1375.29	6
7	인천	2	3	6	12	1341.18	3
8	충남	2	2	6	15	1305.88	15
9	충북	4	3	2	6	1223.56	13
10	제주	2	2	4	7	1021.18	14
11	경기	1	1	6	12	974.12	7
12	강원	1	3	5	3	902.35	1
13	충북	2	0	5	6	810.59	4
14	대전	2	1	1	11	747.06	9
15	대구	2	1	1	11	484.71	12
16	울산	1	1	0	3	331.75	신생팀

제79회 전국체전 전적분석

안정적인 경기운영으로 무리없이 우승을
한 남자헤비급의 김제경(오른쪽).

국가대표 1진 성적부진

전국체전 수준 높다

전국체전의 수준은 매우 높다. '97 홍콩세계선수권대회를 한달 앞두고 치러진 올해의 전국체전에 참가한 14명의 국가대표 1진 가운데 5명만이 우승을 차지했고 3명이 2위, 4명이 3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8강전에서 탈락했다.

대표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이번 체전에서 별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전국체전이 국내 최대규모의 최고수준의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나쁜 결과는 아니다.라고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황춘성 의장은 말했다.

이번 전국체전에 참가한 1진 대표선수들의 전적을 체급별로 심층분석해 보았다.

국가대표 1진 전국체전 전적

남 자 부

여 자 부

체급	성명	순위	체급	성명	순위
핀급	김병태	3위	핀급	양소희	우승
플라이급	진승태	2위	플라이급	윤송희	3위
밴텀급	김현용	우승	밴텀급	황은숙	3위
페더급	김인동	불참	페더급	정재은	우승
라이트급	심기선	2위	라이트급	강해은	불참
웰터급	김경훈	2위	웰터급	조항미	3위
미들급	이동완	탈락	미들급	우연정	탈락
헤비급	김제경	우승	헤비급	정명숙	우승

제79회 전국체전 전적분석

남 자 부

▲ 핀급 1진 김병태(경기, 남자대학부 핀급 3위) 우승 김광호(전남)

김병태의 경우 준결승전에서 만난 전남의 김광호에게 0-4로 완패를 당했다. 주로 얼굴발차기를 구사하며 득점을 뽑아나가는 김병태의 스타일은 얼굴발차기에 대한 반격에 능한 김광호에게 실제로 매우 취약하였다.

앞으로도 김광호는 김병태의 통령가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짙다.

평가전으로 인한 피로 및 세계대회에 대한 부담감을 감안하더라도 이날 김병태의 경기내용은 실력차에 의한 패배 말고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었다.

현재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김광호는 고교시절부터 빼어난 기량을 보여온 유망주다.

▲ 플라이급 1진 진승태(경남, 남자일반부 플라이급 2위) 우승 최용훈(전남)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줄곧 4~6점의 고득점으로 승리하며 결승까지 올라온 진승태는 체전 참가 대표선수들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경기운영을 하여 자신 이 가진 최고의 기량을 아낌없이 구사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결승서 만난 전남의 최용훈에게 2점의 선취점을 내준 뒤 이를 만회 못하고 결국 패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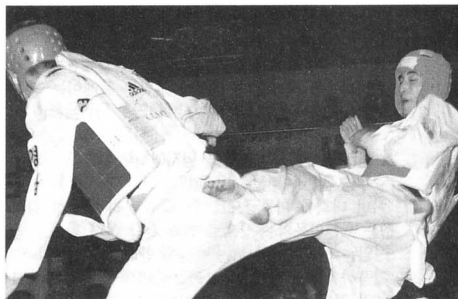
경기내용으로 볼 때 기량차이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전법상의 차질에 의한 결과로 보였다.

초반에 상대를 파악한 뒤 강공을 펼치려 했던 진승태는 상대의 기습공격에 의해 2점을 빼앗겨 이를 만회하는데 실패한 것.

큰 부상이나 슬럼프의 기미가 전혀 없는 진승태의 패배는 상당히 의외였으나, 전국체전의 높은 수준을



▲남자 라이트급 결승에서 전남의 김동현에게 2-3으로 패한 심기선(왼쪽)



▲부상에도 불구하고 남자 웰터급 결승에서 선전했으나 패배한 서울의 김경훈(오른쪽), 왼쪽은 경남의 장우영.

감안하면 놀랄 일은 아닌 듯.

▲ 밴텀급 1진 김현웅(경북, 남자일반부 밴텀급 우승)

예선에서 충북의 박창호를 6-0이라는 큰 점수차이로 따돌린 후 전남의 박종천, 제주의 고대휴 그리고 결승에서 대구의 김건일을 평균 3점 이상의 점수차로 꺾고 체전을 제패한 김현웅은 경량급까지 많은 목적한 기량을 구사했다.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기량을 구사하여 컨디션 관리에 철저한 선수임을 잘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마다 주먹기술에 의한 득점을 한 두개씩 뽑아내 태권도경기에서 주먹기술이 없어져 간다는 우려를 덜어주었다.

▲ 페더급 1진 김인동(불참)

풍상고를 졸업, 조선대에 재학중인 김인동은 경기도나 전남 어디로도 나올 수 있었으나 세계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임을 감안한 지도자부처의 배려와 이해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 라이트급 1진 심기선(경기, 남자대학부 라이트급 2위) 우승 김동현(전남)

예선에서 충남의 정환백을 4-2로 누르고 서울의 최태호와 전북의 김정수를 각각 2-0과 4-2로 꺾고 결승에 올라 전남의 김동현에게 2-3으로 패했다.

세계대회에 대한 부담때문인지 아니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탓인지 전체적인 경기운영이 그다지 매끄럽지 못했다. 초반에 실점을 한 후 3회전 들어 겨우 역전시키는 장면이 여러번 연출됐다.

특히 준결승의 김정수에게는 3회전초까지도 패색이

제79회 전국체전 전적분석

집다가 중 후반부에 들어 3점을 연속득점하여 겨우 이겨 소속팀과 원정단을 긴장시켰다.

전남의 김동현에게도 초반에 잃은 3점을 2점까지 밖에 만회못해 패배했다. 명성에 걸맞는 플레이는 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

▲ 웰터급 1진 김경훈(서울, 남자대학부 2위)

우승 김민우(부산)

이번 대회에 미들급으로 한 체급 올려 출전한 김경훈은 오른발목의 부상으로 인해 원발 하나 밖에는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결승까지 오르는 동안 평균 2~3점의 득점을 뺏고 1~2점 정도를 뺏기는 경기를 벌여 부상당한 선수치곤 결과가 훌륭한 편.

준결승에서 만난 장우영과의 경기서는 뒷자기를 정확하고 힘있게 맞아 점수를 허용하면서도 곧바로 뒷주먹 공격으로 큰 충격을 상대에 주어 다운을 빼앗는 등 혈전을 벌여 4-3으로 힘겹게나마 승리했다.

결승서 만난 미들급 국가대표 2진인 이민우에게는 1회전부터 큰 기술에 의한 득점을 여러 차례 허용하면서도 적극적인 공격은 하지않아 보는 이들을 의아하게 했다.

부상한 상태인 점을 감안, 스스로 몸을 사린 듯.

결승 2회전에서 기권패 했다.

▲ 미들급 1진 이도완(서울, 남자일반부 헤비급 8강전 탈락)

우승 김재경(울산)

다리에 입은 부상으로 무척 고생했다. 더구나 본래 그의 체급인 미들급에서 한 체급 올린 헤비급으로 출전, 힘겨운 상대들을 차례로 만나 8강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부상한 가운데서 부상의 문대성과 4-5의 점전 끝에 패배했다.

▲ 헤비급 1진 김재경(울산, 남자일반부 헤비급 우승)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3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승리하며 올라왔다.

결승서 만난 서울의 박형래와는 3-3의 불꽃튀는 점전 끝에 우세승으로 힘겹게 승리.

주특기인 오른발 앞돌려차기가 널리 알려져 이에 대한 견제를 많이 당해 몇 차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특별한 부상도 없었고 컨디션에도 큰 지장이 없어 정상적인 경기운영을 했다.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는 것을 대표선발전을 통해 이미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막하의 점전 끝에

아슬아슬한 승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박형래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여 자 부

▲ 핀급 1진 양소희(충남, 여자일반부 플라이급 우승)

핀급에서 한 체급 올린 플라이급으로 출전했다. 플라이급 대표 1진인 윤송희를 준결승에서 2-2의 접전 끝에 우세승으로 힘겹게 이기기도, 차분하고 침착한 경기운영으로 큰 기복없이 경기들을 마무리지어 세계대회를 앞두고 상당히 안정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결승서 만난 광주의 이순영에게는 4-0의 큰 득점차로 이겨 국가대표 1진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 플라이급 1진 윤송희(경남, 여자일반부 플라이급 3위) 우승 양소희(충남)

준결승에서 핀급대표 1진인 양소희를 만나 본래하여 3위에 그쳤다. 실 새 없는 거친 공격으로 양소희를 몰아붙여 2-2의 동점을 만들어 누구의 손이 올라가도 항의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에서, 침착하게 유효타를 보다 많이 이끌어 낸 양소희에게 우세로 지게 된 것.

두 사람이 다시 만나 겨루더라도 그 결과는 예측할



◀1진간의 대결 여자플라이급 준결승에서는 핀급에서 플라이급으로 한 체급 올린 대표 1진 양소희가 플라이급 대표 1진 윤송희를 이겼다.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보는 이들의 공통된 견해.

양소희가 공격을 많이 하지않으면서도 찬스포착에 뛰어난 반면, 윤송희는 얼굴발차기와 기타 큰 동작 등을 과감하게 구사하며 몰아붙이는 스타일이라서 매우 대조적이었다.

▲ 밴텀급 1진 황은숙(인천, 여자일반부 밴텀급 3위) 우승 이지은(경북)

인천의 백전노장 황은숙이 전북의 신에 이지은에게

제79회 전국체전 전적분석

2-4로 패한 것은 상당한 충격이었다.

대표선발과 3차에 걸친 1, 2진간의 평가전에서도 안정적인 승리를 기록해 온 황은숙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선수인 경희대 소속 이지은에게 완패를 당한 것은 "이변"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황은숙의 단점은 받아차기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

스텝은 매우 능숙하고 화려하면서도 이를 공격에 연결하는 데는 그다지 매끄럽지 못한 것이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대의 공격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받아치기를 시도하려는 황은숙의 스타일은 변칙성 공격에 매우 능숙한 이지은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 페더급 1진 정재은(서울, 여자고등부 페더급 우승)

서울팀이 전국체전 태권도경기에서 우승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여자고등부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정재은은 평균 5점 이상의 득점으로 결승까지 올랐다.

고교 3년으로 대표선수가 된 경력답게 고교생들보다 전반적 기량에서 한수 위였다.

갑작스럽게 들어찍는 뒷발로른발 내려찍기가 무척 돋보였다.

결승에서 만난 전남의 김정은과는 2-2의 접전 끝에 우세로 이겼다. 그러나 실제 경기내용면에서는 정재은이 시종 리드를 하여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1~2회전에서 2점의 선취점을 획득한 정재은이 3회전들어 수세와 회피로 일관하며 점수를 지키려다 2점을 내주는 바람에 발생한 실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했다면 우세로 힘겹게 이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 라이트급 1진 강해은(불참)

특별한 부상 등의 사유는 없었으나 세계대회를 한달 앞둔 점을 감안, 불참했다.

▲ 웰터급 1진 조항미(인천, 여자일반부 웰터급 3위)

우승 이정숙(제주)

이미 고교시절부터 대표선수로 활약해 온 조항미는 여자답지않은 스피드와 파워로 이름이 높은 미들급의 최강자.

이런 최강자도 복병이 많은 국내 최대 경기서서는 결국 패하고 말았다. 1-3이라는 점수로 패배한 원인은 세계대회를 앞두고 심리적 부담감에 기인한 것이란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

3-1이란 스코어는 태권도 경기에서는 거의 완패에

가까운 것으로 이로 인해 행여 세계대회를 앞두고 사기에 지장이 있거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표팀코치들에게서 나왔다.

▲ 미들급 1진 우연정(대전, 여자일반부 8강전 탈락) 우승 박선미(강원)

신인으로서 국가대표 1진에까지 오른 우연정은 전국체전 태권도경기 5일째인 12일, 대표 1진으로서 최초의 패배를 기록했다.

우연정을 꺾은 부산의 이희영은 바로 그 다음 경기에서 강원의 박선미에게 패배하여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의 기량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예선서 만난 대구의 김미영과의 경기도 이기기는 했지만 2-2 상황에서 김미영의 반칙행위로 인한 감점선언에 의해 승리한 것에서 보듯 그다지 훌륭한 것은 아니었다.

뒤이은 부산의 이희영과의 경기도 1-2의 상황에서 이희영이 1점을 감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세로 저서 국가대표 신인으로서 세계대회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평가전으로 인한 피로가 적지 아니한 수준임을 암시했다.



▲여자부헤비급 최강자임을 재확인한 정명숙. 왼쪽은 서울의 김윤경.

▲ 헤비급 1진 정명숙(전남, 여자일반부 헤비급 우승)

여자부 헤비급의 최강자임을 재확인한 대회였다. 기량 차이도 매우 커서 한동안은 정명숙의 아성을 위협할 선수는 없을 것이란 것이 보는 이들의 중론.

최고 8점에서 최저 3점까지의 고득점으로 승리했으나 준결승에서 정명숙과 겨룬 경기의 신경현은 어느 정도 선전을 하여 경력이 좀더 쌓이고 노련해진다던 정명숙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평가됐다.

전국체전에서 돋보인 유망주

고등학생으로 국가대표 1진에 선발된 정재은 선수를 제외하고 이번 전국체전 참가선수 가운데 각 대학 스키우트 관계자들이 0순위로 주목하는 선수는 남고부 해비급 우승자인 이석훈과 여고부 뱀텀급 우승자인 박경은이다. 두 선수를 만나 보았다.
(마산 = 신창화 기자)

남고부 해비급

이석훈 (부산 금정고 3년)

홀

통한 선수는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석훈 선수를 보면 타고난다는 생각이 든다. 태권도를 시작한지 1개월도 채 못되어 대회에서 입상을 했고 2년반 만에 결국 국내 최대대회인 전국체전을 석권한 것이 노력의 결과라면 이것은 정말 초인적인 노력이었을 것.

부산 금정중학교 시

타고난 태권도 선수 이상적인 체형 갖춰

절 110kg의 체중과 190cm의 키라는 신체조건을 보고 태권도선수를 하면 유망하겠다는 권고를 해준 강종철 금정고고 태권도부 코치에 의해 태권도에 발을 들여 놓게 된 이석훈은 당시 공부도 상당히 잘하는 모범생이어서 운동선수로 키우시길 꺼려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한 때는 고민을 하기도 했다고.

그러나 이석훈이 태권도에 입문한지 1년도 채 못돼서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등 뜻하지 않게 두각을 나타내자 부모님이 오히려 더 적극 지원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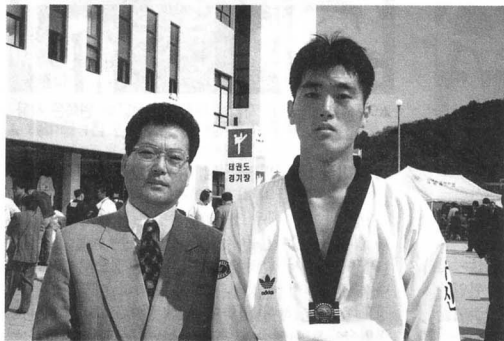
게 되었다고 한다.

이석훈을 키운 강종철 코치는 “태권도를 위해 태어난 인물”이라며 신체조건이 워낙

좋고 성실한 노력과여서 차기 대표감으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태권도 해비급의 이상적인 체형은 무게가 실릴 수 있는 100kg에 가까운 체중에 순발력을 갖춘 장신의 선수다. 고등부 해비급 중 이석훈은 가장 이상적인 체형을 가진 선수 중 하나인 셈.

현재 고교 3학년이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해오고 있고 특히 한국체대의 이승국 교수는 김재경 선수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세련미만 가미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표선수가 될 수 있다며 스카우트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이란다.

이석훈은 스피드와 힘이 매우 뛰어나고 원발공격 특히 능숙한 편이다. 무리한 훈련으로 무릎과 발목이 상해 병원에 2달이



▲우승한 뒤, 아버지 이대규씨와 함께한 이석훈.

나 입원해서도 뭇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 훈련을 할 정도의 노력파다.

부친 이대규씨(48, 자영업)는 말세 한번 안파우고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것이 고마울 뿐, 다른 욕심은 전혀없고 대표선수가 되는 것을 강하게 바라지도 않는다고.

아무튼 전국대회 데뷔 이래 단 한차례 부상으로 인한 패배를 제외하곤, 무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이석훈이 과연 김제경 선수의 뒤를 이을 것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여고부 밴텀급

박경은 (18, 리라공고 2년)

서 올대표로 여자 고등부 밴텀급에서 우수한 박경은은 앞으로 몇해 안에 대표선수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박경은은 이미 1학년 때 제1회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편급에서 우수한 실력을 지니고 있다.

편급에서 밴텀급으로 두체급이나 올리게 된 것은 친구 '심혜영' 때문이라고.

J. 선수권서 우승전력 친구 위해 두 체급올려



▲박경은의 얼굴만 봐서는 누구도 격투기 종목 우승자가 생각지 않을 것이다.

체중감량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고자 체급을 올리는 대개의 선수들은 한 체급 정도만 올리는 것이 보통인데 굳이 두 체급을 올린 것은 친구와 라이벌이 되어 경쟁하는 것이 싫어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정에 힘입은 덕분인지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를 동문수학 해온 심혜영이 올해 부산 동아시아대회 여자부 플라이급에서 우승하여 작년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박경은과 함께 큰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스승인 리라공고의 유수철 코치는 박경은의 최대 강점은 실점을 당하여 뒤지는 가운데도 서두르는 법이 없이 차분히 점수를 보며 역전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자답지않은 놀라운 순발력과 노련한 경기운영은 자신이 여대갓 기른 제자 중에서 으뜸이라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훈련을 잘 따라 외주어 체전 우승의 영광을 안게 됐으며, 내년의 전국체전 때도 우승을 하여 2연패를 이루도록 해보겠다고.

박경은 선수는 경기도 광명시의 서면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집 근처 체육관에 나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

한 장중여중을 거쳐 리라공고에 진학했다.

장중여중에서는 태권도 부가 없어 리라공고에서 운동하면서 고등학교

교 언니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유수철 코치의 눈에 띄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다는 박경은의 꿈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유수철 코치의 전망이다.

18살, 한참 놀고싶고 하고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데 하루 6시간 이상의 태권도 수련과 아울러 틈틈이 학과공부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몹시 아쉽다는 박경은은 훌륭한 전적을 쌓아 태권도 명문대에 들어가는 날, 이 모든 고생의 대가가 돌아오리라 믿는다고.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 대학에 가서도 가급적이면 국문학과에 재학하면서 선수생활을 하여 문학소녀로서의 꿈을 장래에 실현하고 싶다고.

현재는 바빠서 시나 소설류의 책을 많이 보지 못하지만 작년까지도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해 운동시간과 학과공부시간 외에는 책 읽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했다고 한다.



하 권 익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의 권위자들이 쓰는

어린이와

태 권 도



심 중 섭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아정형외과)

스포츠와 어린이 질병

병이 있어도 알맞은 운동 필요

어린이도 스포츠를 즐기기에 전에 몸에 어떠한 병이 있는지를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난호에 썼던 비만 뿐 아니라 심장병, 천식, 빈혈, 기형, 지능저하 등 어린이에게 볼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질병에 과연 스포츠가 해당 어린이에게 어울리는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훈련을 시켜야 하는지 등 운동을 지도하는 코치나 부모들에게 궁금한 면이 많이 있다.

여러가지 질병의 문제점에 대하여 뚜렷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 각국을 중심으로 질병을 가진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의 스포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도 어린이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지체부자유아에게서도 서서히 적용되고 있고, 학교 및 과외 스포츠 활동이 모든 어린이에게서 증가되고 있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게 과연 스포츠를 시켜야 하는지, 시키려면 어느 정도가 좋은지를 몇회에 걸쳐서 알아보기로 한다.

흥미로운 것은 전문가들 대부분이, 심각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을 가진 어린이에게도 적절한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장병, 혈압치료에도 효과

먼저 심장병을 가진 어린이를 생각해 보자. 심장병이 의심되는 어린이는 대개 청진기로 심잡음이 들리게 되며 이 경우에 대개의 소아과 의사들은 심장전문인에게 검진을 받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심잡음은 어린이의 절반이상에서 들릴 수 있다고 하며, 따라서 심잡음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꼭 이것이 심장병이 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심장병이 의심되고 심잡음이 들리는 어린이는 대개 심전도 및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하여 정말로 심장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 받아야 한다.

보고에 따르면 선천성 또는 류마치스 심장병이 있는 어린이의 경우라도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

우라면 학교에서의 모든 스포츠 활동은 대개 지장이 없다고 한다.

성인 보다는 드물지만 심장박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대개 이러한 어린이는 스포츠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고 한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서 적당한 훈련으로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이 사라지고 규칙적인 심장박동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어린이가 혈압이 높을 경우를 보자. 혈압이 약간 높을 경우는 오히려 적당한 운동을 함으로서 혈관 및 심장운동의 증가와 더불어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기

심장병엔 알맞은 운동 천식엔 수영·야구 좋아

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혈압이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인 경우에는 역도 등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운동은 피해야 한다.

스포츠 활동 억제가 오히려 역효과

이와같이 혈관 심장계통에 이상이 있는 어린이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성인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적절한 스포츠를 권장하는 편이 심장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스포츠 활동을 억압할 경우 오히려 심리적인 위축감 내지는 좌절감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다음은 많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대부분의 천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운동이 천식발작을 유발한다고 한다. 운동을 할 때에는 산소 결핍과 산혈증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추위에 운동을 할 때면 이러한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를 부린다고 별을 받거나 주위로 부터 놀림을 받는 일이 종종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유발천식은 적절한 준비운동과 약물로서 쉽게 교정 될 수 있고 알맞은 스포츠를 권함함으로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의 5 - 10%가 천식을 앓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운동할 때 기침, 쌕쌕대는 호흡소리,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운동유발천식은 달리기를 5 - 8분간 하여 심장박동



수가 분당 180이 될 정도로 달리게 한 뒤, 폐기능검사를 운동 직후 5분뒤, 10분뒤 측정하여 운동 전에 비하여 15%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진단을 내리게 된다.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만일 어린이가 운동유발천식으로 판명이 되면 이는 천식이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 경우 우선 알레르기 전문의에게서 진료상담을 받은 뒤 그 진단에 따라서 적절한 환경개선, 약물치료 등의 일반적인 천식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약물치료 말고도 심한 운동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코로 숨을 쉬도록 하여도 운동유발천식이 잘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며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치료방법과 더불어 어린이에게 엄격한 훈련을 시키기 전에 어린이가 잘 해낼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 주는 방법이 더 좋은 치료방법이 아닌가 한다.

운동유발천식 어린이에게는 건조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는 운동인 수영, 기술과 순간적인 힘이 요구되는 야구와 골프 등이 권장할만한 운동이며 지구력을 요구하는 트레킹기, 축구, 농구, 하키 등과 같은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는 스포츠라도 포지션을 변경하여, 예를 들어 골키퍼를 시킨다면지면 하면 운동이 가능할 수 있다.

잠수를 요하는 운동, 자동차 경주 등은 경기 중 호흡곤란의 위험이 있으므로 천식이 있는 어린이에게는 절대 권할 수 없으며 고산지대로의 등반 등도 위험한 스포츠다.

우수도장을 찾아서



경기도 원당

성사체육관

관장 · 조승익

대한태권도협회는 해마다 시도별로 가장 우수한 도장에게 우수도장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를 대표하여 우수도장상을 받은 성사체육관(관장 조승익, 39세, 6단)을 찾아가 보았다.

어린이 무지개 시범단 미국 LA에 파견

새집에서 새로운 각오로

원당으로 가는 길은 단풍이 완연했다. 전철 안에서 바라보는 교외의 정취는 익어가는 만추의 서정을 만끽할 수 있는 나들이였다. 3호선 일산행을 타고 가다 원당역에서 내려 마을버스를 타고 5분 정도 가면 산뜻한 성사체육관 관판이 눈에 들어온다.

지은 지 얼마 안되어 깨끗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세진빌딩 3층으로 올라가니 태권도를 수련하는 수련생들의 힘찬 기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넓고 깨끗한 도장에서는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보이는 저학년 어린이들이 사범님의 구령에 따라 태권도의 기본 품세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각종 상패와 기념패 등으로 장식된 사무실은 도장과 유리문으로 나누어져 있어 사무실에서 수련생들이 수련하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바로 옆 건물에 우리 도장이 있었는데 두달전 이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서 그런지 수련생들도 더 열심히 수련을 하고 있고, 저도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새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새롭게 인생을 계획하듯이 성사체육관의 조승익 관장은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다짐하는 모습이었다.

원당 태권도 발전의 중심지

성사체육관이 경기도를 대표하여 우수도장상을 받기까지는 조승익 관장의 노력이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1978년에 능곡에서 능곡체육관을 운영하던 조관장은 1980년말에 결혼을 하고 이듬해 4월 원당으로 태권도장을 옮겨 성사체육관 문을 열었다. 첫달 수련생은 5명에 불과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전에 있던 태권도 지도자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태권도 지도자인 자신의 이미지부터 새롭게 심어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때부터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동네길을 쓸었다. 23백 미터에 달하는 동네길을 쓸면서 만나는 동네 어른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했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새로 이사온 성사체육관 관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그렇게 하는 동안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수련생 수도 늘어나 오늘에 이른 것이다.

체육관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조관장은 주위에 있는 원당초등학교를 찾아가 태권도를 지도하겠다고 자청했다. 처음에는 태권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교장선생님도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의 심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관장의 설득에 정규체육시간에 주 1회씩 태권도를 지도하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도장과 학교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수천명에 달하는 유단 품자를 배출하며 원당 지역의 태권도 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국가대표로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날린 황은숙(현재 인천시청 소속)을 들 수 있다.

“은숙이가 초등학교생일 때 주춤하기부터 가르쳤지요.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국가 대표로 선발되자 무척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조관장에게 지도자로서 큰 기쁨을 선사한 은숙이 외에도 일산에서 ABC체육관을 운영하는 조철환 관장을 비롯해 무안중학교 황인홍 코치 등이 태권도 지도자로서 조관장의 뒤를 잇고 있다.

체력단련에서 인성교육까지

성사체육관에서는 매일 오후 1시 5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힘찬 태권도 기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초등학교

교 1, 2학년과 유치부가 함께 수련하는 1시 50분 부를 시작으로 3시 30분, 5시 15분 부 유급자 수련시간에는 노윤기 사범(4단, 27세)이 지도하고 있다. 이어 유급자들이 오후 7시, 8시, 9시에 각각 1시간씩 조승의 관장으로부터 직접 태권도를 배운다.

태권도 교육은 10분간 몸풀기, 15분간 기초체력 단련, 20분간 태권도 품새 수련, 10분간 겨루기, 마지막 5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수련생들과 조승의 관장(왼쪽), 노윤기 사범(오른쪽).

이 태권도 정신교육으로 짜여져 있다.

현재 성사체육관에서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은 모두 150여명.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태권도를 배우던 수련생들은 토요일이 되면 열린교육에 자유롭게 참가한다.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는 수련생이 있는가 하면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을 치기도 한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는 합숙도 한다.

흥미있는 장기자랑과 게임 등을 통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단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질서, 의식, 협동심, 선후배간의 예의범절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한다.

3시 30분 부 수련시간에 태권도 품새를 가장 절도있고 힘있게 보여준 주상욱(원당 초등학교 5학년, 2품)



▲지난해 여름, 무지개 시범단이 미국 LA의 한 도장에서 시범을 보이고 난 뒤 그곳 수련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은 성사체육관에서 3년째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몸이 건강해지고 씩씩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상욱이는 지금 또래 아

하는 관훈을 때어냈다. 부모로서, 선생님께서 그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가장 소박하지만 진심한 마음을 담고 지도하겠다는 각오로 “성실, 정직”을 관훈으

“심고, 가꾸고, 거두자” 목표로 애인에게 태권도 가르쳐 승단 후 결혼

이들보다 키도 크고 건강하다. 조관장은 승육이가 공부도 잘하고 예의바른 듬직한 어린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관훈도 「성실, 정직」으로

조관장의 태권도 지도방침은 “심고, 가꾸고, 거두자”로 요약된다. 즉, 시작한 일에 정성을 다바쳐 심고, 성심 성의껏 지도하고, 돌아보고, 가꾸고, 훌륭한 인재로 거두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관장은 태권도장을 처음 운영할 때만 해도 수련생들에게 태권도 정신과 태권도 기술을 지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고 한다.

로 바꾸었다. 그에게 지도자의 자세를 바꾸게 하였던 어린 딸 민희는 현재 행성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다.

무지개 시범단으로 국위선양

성사체육관에서는 수련생들에게 태권도를 통해 국제 무대에 서게 하기 위해 무지개 태권도 시범단을 결성했다. 지난해 6월에 35명으로 구성된 시범단은 태권도 시범, 격파 등을 매일 밤 흘려 연습한 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태권도 시범단이 파견되었다.

태권도 종주국의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으로 미국에

당시 그의 도장 관훈은 태권도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용기, 노력, 인내, 실천”이었다. 그런데 그의 딸이 5살 되었을 때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다.

당시 그는 어린 딸을 태권도장에 데리고 와서 수련생들과 함께 태권도를 가르쳤다. 딸과 수련생들을 함께 지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딸과 수련생들에 대한 애정을 비교할 수 있었다. 딸을 가르치기 전 그동안 자신이 수련생들을 사랑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태권도 지도자로 형식적으로 대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수련생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권도를 지도해야 그 정신도 심어주고 기술도 더 잘 지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거창하게 태권도 정신을 대표

나가게 된 어린이들에게는 자랑스러움이 컸다. 그런데 막상 외국에 나가보고 놀란 것은 미국의 수련생들이 우리나라 수련생들 보다도 더 절도있고 힘 있는 태권도 수련을 보여준 것이었다.

태권도 지도자에게 보내는 미국인 수련생들의 존경심은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극진한 것이었다.

그리고 무지개 시범단이 초등학교 수련생들로 이루어진데 비해 미국 수련생들은 성인들이 훨씬 많았다.

우리나라 도장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조관장 자신도, 시범단으로 파견되었던 수련생들과 미국에서 태권도의 참모습을 본 듯했다.

“시범단을 이끌고 미국에 갔는데 오히려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앞으로 성인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하는 문제에 대해



▲힘차고 절도있게 태권도 품새를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들.

깊이 연구해 보아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니다.”

그는 시범단으로 참가했던 수련생들이 “미국에는 어른들이 더 많이 태권도를 배우네요” 하고 의아해 했던 눈빛을 보고 태권도를 성인들의 사회체육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지개 시범단은 오는 겨울방학 동안에도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태권도인들의 기상을 마음껏 펼쳐보일 것이라고 기대에 차 있다.



■ 조승익 관장 약력

1959년 경기도 고양 출생 (39세)

태권도 6단

경기도 태권도협회 감사

세계태권도연맹 국제심판

대한태권도협회 심판

조관장이 태권도를 배운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짐수레에 다쳐 1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은 끝에 회복되긴 했는데 허약해진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태권도 수련을 시작한 이후 몸이 건강해졌음은 물론이고 태권도 선수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능곡중학교와 능곡종합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그는 학교를 대표해 학도체육대회와 경기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해 기량을 떨쳤다. 군 제대후 도장을 운영하면서 고양군 태권도 선수단 감독으로 활동하며 도민체전에 참가하였고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원으로 활약했다.

조관장은 1980년 11월에 태권도 1단의 채복자씨와 결혼했다. 태권도가 인생의 전부인 조관장은 태권도를 전혀 모르던 애인을 그의 도장에 데려와 태권도를 직접 가르쳤다고 한다. 채복자씨는 국기원 1단 심사에 나가 겨루기 시험 때 상대방을 KO로 당당히 이기고 검은 띠를 따낸 뒤 조관장과 결혼하였다고 한다.

<참고>

성사체육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56-4

세진빌딩 301호

전화번호 : 0344-62-0148



하 권 익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의 권위자들이 쓰는

어린이와

태 권 도



심 중 섭 박사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아정형외과)

어린이의 류마토이드 관절염

운동을 무척 좋아하는 어린이가 갑자기 여기저기 관절이 아프다고 호소할 때가 있다. 대개는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태권도 등 하지 않던 운동을 배운 후 아프면 부모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고, 사실 대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자주 여러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일단 '성장통'이라고 하는, 저절로 치유되는 질환 말고도 여러 가지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특히 '소아 류마토이드 관절염'도 고려에 두어야 한다.

어른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이런 관절염에 걸릴 수 있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

류마토이드 관절염이란 자가면역질환인데, 이는 몸안의 면역기능 중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활동하여 몸의 여기저기의 관절을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시키는 병이다. 이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감염에 의한다는 설, 면역기능의 이상에 의한다는 설, 두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다는 설 등이 있다.

소아 류마토이드 관절염은 드문 질환이기는 하지만 이와 유사한 증세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서 자칫 초기에는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소아 류마토이드 관절염이라고 진단하려면 16세 이전의 환자에서, 원인 모를 만성 관절염이 존재하고, 이의 증상이 6주 이상 존재하고, 검사상 다른 진단이 아니라고 판명될 때를 말한다.

소아 류마토이드 관절염은 대개 세가지로 분류하는데, 소수관절형, 다수관절형, 전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소수 관절형은 4개 이하의 관절이 병에 걸린 경우를 말하며 가장 많지만 다행히 가장 경과가 좋다. 다수 관절형은 대개 5개 이상의 관절을 침범한 경우로 중간정도의 경과를 거치며 대개 60%에서 완치가 된다고 한다. 전신형은 가장 드물며 전신적으로 침범한 경우로 관절 뿐만 아니라 몸안의 여러 기관인 간, 비장, 심장, 조혈기관 등에도 이상을 가져오는 무서운 질환이다.

이러한 소아 류마토이드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진단이다.

어린이들이 여기저기를 아프다고 부모들이 정형외과나 소아과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병력을 자세히 들어보면 대개 진단을 할 수 있다.

소아 류마토이드 관절염과 비교적 흔하지 쉬운 질환들을 들어보자.

만일 주로 운동이나 놀이를 많이 한 날 밤이나, 자다가 일어나서 여기저기 무릎 부근이 아프다고 하고 다음날 갑갑같이 아픈 증세가 사라지는 경우는 성장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아 류마토이드 관절염은 대개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 아프거나 뻣뻣해지며, 움직이고 나면 오히려 증세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관절 주위의 염증이나 발열 등이 관찰된다. 만일 어린이가 갑자기 패렴 등의 염증성 질환과 동반하여 무릎 안쪽이나 사타구니 등을 매우 아파하며 다리



에 완치되었다고 하며 다행히 경과가 대부분에서 좋아 큰 후유증이 없다.

그러나 특기할 것은 이런 어린이의 20% 정도에서 안구의 홍채염이 발생하는데 대개 어린이들이 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말로 표현할 능력이 없는 경우

16살 이전 원인모를 만성관절염 조기진단이 가장 중요, 오래 치료해야

를 절거나 하면, 이는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일 가능성이 많다.

이는 류마치스 관절염과는 다르게 고관절(엉덩이 관절)을 주로 침범하는 염증 질환으로 대개 며칠 또는 몇주일 내에 저절로 염증이 가라앉는 질환이다.

류마치스 관절염과 혼동하기 쉬운 그 외의 질환으로는 화농성 관절염, 결핵성 관절염 등의 염증성 질환이 있으며, 드물게 조혈기관장애의 질환들, 예를 들어 백혈병, 혈우병 등이 간혹 혼동시키는 질환에 속한다.

한편 류마토이드 관절염과 유사한 다른 종류의 자가면역성 질환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는 치료 및 진단이 류마토이드 관절염과 비슷하므로 대개 류마치스 관절염 전문의에 의하여 감별된다.

소아 류마토이드 관절염 중 가장 흔한 소수관절형의 증세를 보면 어른의 경우에는 손가락을 주로 침범하는데 비하여, 어린이에게는 대개 무릎, 엉덩이, 손목 등 주로 몸의 큰 관절에 병이 생기게 된다.

관절의 염증반응이 심해짐에 따라서 몸안의 혈액 검사로 염증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75%의 환자에서 대개 15년 이내

가 대부분이므로 소아 류마치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된 경우, 적어도 초기에는 수개월 마다 안과진찰을 받게 하는 것이 좋다.

소아 류마토이드 관절염의 치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경우에 따라서 악화되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게 되므로 부모와 치료하는 의사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부모들이 단시간 내에 완치를 원하거나, 병원치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시중에 떠도는 특효약이나, 검증되지 못한 치료약을 찾아서 방황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소아 류마토이드 관절염 환자들은 염증을 없애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의 치료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관절이 심하게 변형이 되어 있거나 부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적 요법이나 물리 치료 등이 병행되는데 전문의 사들이 매우 세심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고 전적으로 치료를 신뢰하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요한다.

챔피언의

영양학



장 정 옥 박사

신체활동학과 교수
한국스포츠학회
대한스포츠영양학회 이사

포타슘과 수분 섭취

땀 빠진 만큼 보충해야 포타슘 보충은 필요없어

人 포츠선수에게는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등도 필요하고 또 물을 알맞게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격한 스포츠를 하면 갑자기 허탈상태와 의식불명에 빠지

는 수가 있다. 소위 열사병이라는 것이다. 고온다습한 가운데 수분을 공급하지 않고 강도 높은 운동을 몇 시간씩 계속할 때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이번 호에서는 포타슘(K), 그리고 수분섭취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포타슘(K)

시중에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 음료에는 소염염 뿐만 아니라 포타슘을 함유하는 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광고내용과는 달리 땀을 통한 포타슘의 손실은 매우 적으므로, 운동선수에 있어서 포타슘의 고갈이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일상적인 식사로부터 섭취된 포타슘 중 상당량은 소변으로 배설되고 소량만이 체내에 남아 체조직의 보수와 정상세포의 대체에 이용된다. 따라서 포타슘의 보충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전해질의 보충은 권장되지 않으나, 극단적인 지구력이 필요한 경기, 예를 들면 50마일(80.45km)육상, 170마일(160.9km) 자전거 경기 등에서는 전해질 보충

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각종 질병이나 이뇨제 및 설사약의 복용으로 체내에 포타슘을 보충시키는 기전이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상당량의 포타슘 손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운동선수가 체중 감소를 위하여 이뇨제나 하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분

사람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필수 영양소는 결핍증세가 나타나기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물의 경우는 다르다. 즉, 우리 몸에 수분이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고는 단 며칠도 어렵다.

● 근육활동시 수분 함량의 변화

지방이 없는 근육조직이 지방조직보다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음은, 근육의 왕성한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화학반응의 수행을 위해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한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잘 훈련된 운동선수라면 체중에서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클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수분함량은 남녀 각각 60% 및 55%이나, 근육질의 남자 운동선수들(수영, 육상, 체조 등)은 70%나 되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운동을 하는 동안은 근육의 활동으로 체내 수분 분포에 커다란 변화가 온다. 즉, 운동을 시작하면 세포 외액이 에너지가 생성되는 장소인 세포내액으로 이동하고, 근육세포로 이동한 세포외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혈장으로부터 수분이 신속히 이동하게 되므로 순환하는 혈액의 양이 감소된다. 따라서 신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므로 소변 배설량도 줄어들게 된다. 일단 운동이 시작되면 땀과 증가된 호흡으로

인한 수분의 손실이 증가되므로 소변배설량이 감소하게 된다.

● 수분의 보충

일정기간 동안의 운동으로 탈수증세가 나타날 경우, 갈증이 날 때 먹는 물의 양만큼으로는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기에 부족하다. 수분 필요량을 충족시킬 정도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수분 결핍증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땀으로 인한 체중(수분)의 손실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높은 기온에서 운동하는 데 익숙한, 잘 훈련받은 운동선수는 잘 훈련받지 못한 선수보다 스스로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며 더 많은 땀을 흘리므로, 더욱 효과적으로 체열을 발산한다. 평소에 많은 물을 먹어 손실된 수분을 거의 대부분 보충해주는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더운 날씨에 격렬한 운동을 한 후 24시간 내에 보충되는 수분은 흘린 땀의 겨우 1/3~1/2에 불과하다. 그

각종 미네랄 많고 수분섭취 빨라

스포츠 드링크

한국인들은 식생활의 근대화 속에서 사탕의 소비를 늘려왔지만 최근 당분의 과다섭취가 건강에 비임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관심이 쏠려 단맛이 강한 주스류보다 비교적 당도가

스포츠 드링크는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



낮은 새로운 음료인 소위 스포츠 드링크를 마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스포츠 드링크는 물에 견주어 수분의 섭취가 빠른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그 까닭은 사람의 체액과 거의 같거나 조금 낮은 삼투압으로 조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드링크에 공통되는 성분적인 특징으로서 사탕이나 포도당, 과당 등 단맛의 당분이 6~13%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캔에 들어있는 250ml의 용량 가운데 15g부터 30g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뜻한다.

신맛의 성분으로는 구연산이나 유산같은 유기산이 함유되어 있어 스포츠 드링크의 pH를 3.5가량의 산성으로 만들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성분은 미네랄이다.

그루타민산나트륨, 구연산나트륨, 염화칼륨, 유산칼슘, 염화마그네슘, 그리고 리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미네랄을 중심으로 삼투압의 조절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운동할 때 땀으로 잃어버리는 미네랄의 보급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챔피언의 영양학

러므로 더운 날씨에 운동하는 모든 운동선수들은 매 훈련 또는 경기 전후에 체중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손실된 수분량으로 보고 수분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당한 수분 공급은 운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은 경우), 체수분의 손실이 체중의 3% 이상이면(예: 90kg인 선수에서 27kg이상) 대개의 경우 경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탈수를 예방하여 경기나 훈련시 적절한 성과를 얻고자 할 때는, (목이 마르다는 갈증의 정도가 수분 필요량의 올바른 척도가 아니므로) 계획을 세워 일정량의 수분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경기 전의 수분섭취

경기전의 수분섭취(운동하기 20~30분 전에 찬물 1/2~1L 정도)는 특히 더운 날씨에 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경기 전에 여러분의 수분을 마셨을 때, 심장박동과 몸통의 체온이 낮아지고 땀의 분비속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졌다는 연구보고들이 많다.

● 탈수와 근육경련

근육경련은 흔히 탈수와 관련이 있다. 탈수 이외에도



전해질 불균형 또는 국소빈혈 등으로 인하여 통증과 함께 무의식적인 근육수축이 일어나기도 한다. 심하게 땀을 흘렸을 때 탈수로 인해 발생하는 근육수축(hear cramps)이 가장 흔하다.

보통의 날씨에서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선수들은 한 시간에 4~6파운드의 수분 손실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때에도 운동 20분마다 약 1컵(240cc) 정도의 충분한 물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 더운 날씨에 며칠간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탈수증'이 될 수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체중을 측정하여 계속적으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알 콤 음 료

종 류	분 량(cc)	cal	함수탄소(%)	알콜(%)
증류주: Benedictine	20	80	30	30~50
브랜디 (Brandy)	30	75	각각 다름	30~50
creme de menthe	20	75	30	35~50
진 (gin)	45	125	-	35~50
럼 (Rum)	45	140	-	40~50
위스키 (wiskey)	45	130	-	45~55
각테일: 하이볼과 ginger ale	25	185	-	-
맨하탄 (manhattan)	-	165	-	-
마티니 (martine)	-	140	-	-
술: 샴페인 (champagne)	135	105	2~13	9~12
캘리포니아 (california)	120	95	각각 다름	10~16
포트 (port)	60	95	12	15~20
쉐리 (Sherry)	60	75	1~7	15~22
맥주: 애일 (Ale)	250	155	5	4~6
비어 (Beer)	250	110	1	3~8
사이다: 단 것	250	70	3~7	1~3
발효시킨 것	250	130	각각 다름	6~10

챔피언의 영양학

식사계획시 고려사항

■식품을 선택할 때

- 가공식품 대신 가능한 한 제철에 나는 신선한 식품을 이용합니다.
- 섬유소가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을 선택합니다.
- -정제된 곡류보다는 도정이 덜 된 곡류를, 주스나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을, 채소즙보다는 생채소를 선택하면 섬유소의 섭취가 많아집니다.
-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은 가급적 피합니다.
- 식품의 구입시 제조일, 식품내용 및 성분을 확인합니다.

■조리할 때

- 조리하기 전에 식품의 무게를 달아보는 습관을 길러서 교환 단위의 양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 고기류의 기름을 빼어내고 닭고기는 껍질을 벗긴 후 조리합니다.
- 소금, 간장의 사용량을 줄입니다.
- 튀김과 같이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 버터, 라이드, 돼지기름 등의 동물성 기름 대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합니다.
- 설탕, 물엿, 꿀 등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설탕 대신 식초, 겨자, 계피, 생강, 레몬 등의 향신료나 양념류를 적절히 사용하여 음식 맛의 효과를 높입니다.
- 음식의 단맛을 내기 위해 아스파탐(그린스위트, 화인스위트 등)을 사용할 때에는 높은 온도에서는 단맛이 감소하므로 식은 뒤에 넣습니다.

■외식할 때

- 아침 식사는 반드시 섭취하며, 가급적 외식의 횟수를 줄입니다.
- 본인의 허용열량에 맞는 음식을 선택합니다.
- 외식에서 부족한 식품은 다른 끼에 보충하도록 합니다.
- 다양한 식품선택으로 영양소를 균형있게 섭취합니다.
- 동물성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선택을 피합니다.
- 자극적인 음식, 찬 음식, 지나치게 단 음식은 피합니다.
- 매일 식사량은 항상 일정하게 합니다.

식품 중의 Cholesterol 함량

<고기류>	mg/100gm
쇠고기	
기름기 있는 부분	125
살코기	95
양고기	70
돼지살코기	60
토끼살코기	50
송아지고기	100~140
<냉장고기류>	
소 뇌	2300
소염통	145
소곰팔	400
간(肝)	
소	320
송아지	360
양	610
돼지	420
지라 또는 홍선	280
참자	150

<생선류>	mg/100gm
대구	50
굴	230~470
<기타>	
생선간유	
대구	500
넙치종류	7500
돼지기름	110
소기름	107
(신장이나 허리부분의 굵은 기름)	
소의 기타 부분 지방	90
연어	60
새우	150
다랑어	60
<가금류(家禽類)>	
닭	
살코기	60~90
전체적으로	113
살갓	89

오리고기	70
칠면조고기	75
<낙농제품류>	
버터	280
치즈	
전유(全乳)	135~160
cottage	1.7
cream(25%지방함유)	87
<달걀>	
달걀	468
난황	1330
난백	0
<우유>	
전유(4% 지방)	14
탈지유(1% 지방)	0.4
양의 신장기름	107
양의 기타 부분지방	89
돼지비계	99

* 과일류 · 채소류 · 곡류 또 기름기가 없는 맑은 고깃국이나 스프에는 cholesterol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연재 제9회〉

제9회 (제2회 여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이 경 명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

한국에서 4번째 '92 올림픽서도 시범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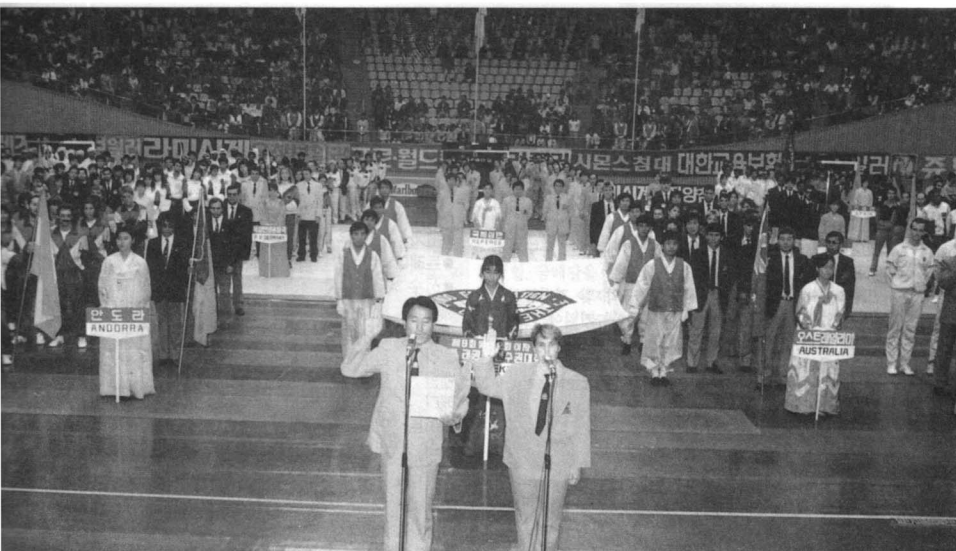
“두터운 우정, 빼어난 기술, 고귀한 정신”이라는 하나됨의 기치 아래 세계태권도 가족들의 큰잔치 제9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겸 제2회 여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세계태권도연맹(WTF)소속 112개국 중 61개국 727명(임원 239명, 선수 남 333명, 여 154명)의 임원 및 남녀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1989년 10월 9일 잠실체육관에서 개막, 열전 6일에 돌입했다.

한국에서 네 번째로 열리게 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태권도가 88서울올림픽에 이어 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도 시범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다.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IOC집행위원)은 “이번 대회에 태권도의 올림픽종목 채택여부가 달려있다”고 밝히고 태권도인은 물론 세계스포츠허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뜻에서 정식종목채택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회 개막식에서의 특징은 대형 세계연맹대회기의 운반, 입장을 그동안 여학생들에게 한복을 입혀 내보내던 방식을 지향하고 역대 한국 챔피언들이 들고 입장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챔피언은 한재규, 이재봉, 하석광, 황용수, 허승 강익성, 최정도, 장승 화씨였다. 그리고 식전행사로 이루어진 인천시립무용단의 고전 무용은 외국인 임원, 선수 및 관중들로부터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개막식에서 공정한 경기운영을 다짐하는 심판선서.

두터운 우정 배어난 기술 고귀한 정신

61개국
727명
참가

한국남자 9연패 목표

한국은 이번 대회서 남녀 모두 우승을 목표로 하였다.

이미 대회 8연패를 이룬 남자부선 파위를 앞세운 유럽세에 중량급 한두개 채급을 내줄 가능성은 있으나 한국의 종합우승은 기정사실로 내다봤다. 여자는 87년 바르셀로나 대회서 창설돼 한국이 남자와 함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단은 남녀 8체급 및 코치, 트레이너를 포함 23명으로 9월 5일부터 한달간 국가원에서 강화훈련을 해 왔다.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장은 10월 6일 상오 국가원에서 가진 결단식에서 "투기종목 중 빠른 성장세를 보

이고 있는 태권도가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명실상부한 정상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번 대회와 '92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에서 모범적인 경기운영능력과 우수한 기량을 대내외적으로 선보여야 할 것이라며 격려, 선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용석 단장은 답사에서 "올림픽을 치른 스포츠 선진국 국민의 높은 수준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동안 갖고 뒀던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운용 총재 5번째 피선

세계태권도연맹(WTF)은 7일 하오 셰라톤 워커히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정기총회에서 김운용 총재가 차기 총재로 재선출되었다.

5차레나 연임하게 된 김운용 총재는 이날 대회사에서 "태권도가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제스포츠 무대에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은 112개국 회원국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밝히고 96년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도록 계속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한편 이번 총회에서 결정기로 했던 91년 제10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 및 제3회 세계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는 그리스(아테네)와 미국, 브라질(상파울루)의 치열한 유치경합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 회원국의 우편투표를 거쳐 1개월 안에 확정기로 했다. 또 91년 제5회 월드컵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동구권인 유고의 자그레브에서 열리게 했다.

또한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규약 및 경기규칙 개정이 있었고 신규 회원국으로 파푸아뉴기니아, 케이만군도, 통가, 시에라레온, 헝거리, 파나마, 모두 7개국을 승인했다.

제4회 국제심판 보수교육

세계연맹은 제4회 국제심판 보수교육을 10월 8일 국기원에서 165명의 국제심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보수교육은 국제심판의 자세, 경기운영방법, 채점 및 감점요령, 경기규칙 해설 등 이론과 실기로 이루어

◆한국대표선수단

- 단장 한용석
- 감독 김영삼, 장한철(여자팀)
- 코치 김우규, 이철주(여자팀)
- 트레이너 정 찬, 임신자(여자팀)
- 선수

체급	남자	여자
핀	권태호(경희대)	김지향(철산여중)
플라이	김철호(한체대)	원선진(수성여중)
밴텀	함준 (한체대)	정남숙(천안여고)
페더	장혁 (한체대)	김소영(경기도협회)
라이트	양대승(한체대)	이은영(경희대)
웰터	이현석(동성고)	김지숙(경기도협회)
미들	정웅석(현대자동차)	김현희(경희대)
헤비	최상진(삼우)	정원숙(성신여대)



▲로열박스석의 VIP들. 왼쪽 두번째부터 정대철 의원, 김집 전 체육청소년부장관,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민관식 원로.

졌다. 특히 이론교육에 있어 수강생들은 차가운 마루 바닥에 앉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의무분과, 국제심포지움

10월 8일 세계태권도연맹 의무분과위 조장원위원장 등 21명의 의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라톤 위커힐호텔에서 의무분과 국제심포지움을 가졌다. 「태권도 경기에 있어 생리학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열전 6일, 한국남녀 종합우승

10월 9일: 대회 9연패를 노리는 한국 남자팀은 개막 첫날 플라이급의 김철호가 그리스의 발리스 이르질리스를, 페더급의 장혁은 일본계인 브라질의 밀튼 이와마를 각각 판정으로 꺾고 2회전에 진출하는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날 페더급의 장혁은 이와마를 맞아 1회 뛰어난

한국남녀 종합우승 - 대회 9연패

발기술을 보이며 다운까지 뺏고 2득점한 후 2회전에도 두 차례의 다운을 뺏은 일방적인 공격 끝에 5-0으로 판정을 거두며 2회전에 올라 금메달 유망주로 떠올랐다.

한편 플라이급의 김철호가 2회전에 안착한데 이어 한국의 금메달 유망주 밴텀급의 함준과 핀급의 권태호는 1회전을 각각 부전승으로 통과했다. 라이트급의 양대승은 칠레를, 웰터급의 이현석은 큰 키(191cm)를 이용해 호주의 토니 커티스에 내려찍기와 앞돌려차기를 퍼부어 3-0으로 승리했다.

10월 10일: 대회 2일째 해비급의 최상진을 비롯, 6명이 모두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올라 전날 2계급과 함께 전원이 16강에 진출했다. 이날 최상진은 말레이시아의 라시드를 2회전 1분 47초 만에 오른쪽 내려찍기로 통쾌한 KO승을 거뒀다. 또 밴텀급의 함준, 페더급의 장혁, 미들급의 정용석 등은 한수 위의 월등한 기량으로 모두 판정승으로 이겼으며 라이트급의 양대승과 유일한 고교생 선수인 웰터급의 이현석은 상대선수의 체계량 실격으로 대전없이 16강에 올랐다.

10월 11일: 권태호와 장혁, 김소영이 금메달을 획득, 한국이 종합우승 9연패를 위한 금 수확에 돌입했다.

남자 핀급 결승서 권태호는 대만의 창중산에 우세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권태호는 이날 주무기인 밀어차기, 몸통돌려차기 등 월새없이 발공격을 퍼부어 매회 우세를 따냈다. 8강전서 멕시코의 일카리를 1회 2분 18초만에 KO로 눌렀던 페더급의 장혁은 결승서도 프랑스의 위베르 시네크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6-0으로 완승했다. 또 여자페더급의 김소영은 결승서 미국의 김 다슨을 맞아 몸통받아차기를 거꾸 성공시켜 4-1로 낙승, 1회 대회 우승에 이어 2연패의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최연소 국가대표로 기대를 모았던 여자 핀급의 김지향은 준결승서 대만의 친 유 팡에 2-3으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이로써 이날 현재 한국은 금3, 동1, 대만은 금1, 미국과 멕시코가 은1, 동1개씩을 기록했다.

10월 12일: 경기 4일째 한국은 남자에서 금메달 4개를 따 대회 9연패를 사실상 확정짓고 여자선수도 금메달 두 개를 확보했다.

플라이급의 김철호와 웰터급의 이현석은 터키의 투르구트 우칸과 칠레의 홈베르토를 각각 판정으로 제압, 금메달을 땀다.

그리고 여자 플라이급의 원선진은 대만의 파이 윤야오와 접전 끝에 2회 오른쪽 몸통공격이 주효해 2-1로 승리를 거뒀다.



▲제9회 세계선수권대회와 함께 치러진 제2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열전이 관중들을 열광시켰다.

그러나 웰터급의 김지숙은 준결승에서 네덜란드의 안네무케 바이스에 판정으로 져 동메달에 그쳤다.

10월 13일: 경기 5일째 양대승, 정완숙, 이은영이 각각 금메달, 최상진은 은메달을 따냈다. 이로써 한국남자팀은 5종목서, 여자는 4종목서 각각 1위를 차지해 나머지 경기에 관계없이 남녀동반 우승을 확정했다.

라이트급의 양대승은 결승에서 터키의 타마자노그루를 압도하며 4-1로 판정승했다. 여자부선 '97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라이트급의 이은영이 대만의 류차오 청을 얼굴찍기 등으로 가차, 4-2로 제압, 대회 2연

역대 세계선수권대회

패를 달성했다. 또 해비급의 정완숙이 캐나다의 프란센과의 결승전서 얼굴내려찍기를 성공시켜 1-0으로 신승했다.

그러나 최상진은 남자해비급 결승서 이집트의 마흐모드와 공방전 끝에 3-3으로 비겼으나 공격빈도에서 뒤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10월 14일: 최종일 경기서 한국은 함준, 정용석, 정남숙이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다.

남녀 밴텀급 및 미들급 경기가 열린 이날 함준은 남자 밴텀급 결승서 돌려차기 2득점, 뒤차기 1득점을 얻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미수교국 소련, 베트남, 팔레스타인이 참관단을 파견,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대변했고 민간외교부문에서의 성과도 높았다.

그러나 경기 운영면에서 문제점도 노출시켰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이번 대회의 목표를 태권도의 국제적 지위를 보다 격상시켜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가속화 시키려는데 뒀으나 세미나, 공청회 등 행사프로그램이 부족했고 다른 대형 행사 등과 일정이 겹쳐 관중동원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제9회 세계대회의 경기운영을 맡은 국제심판진들.

어 이탈리아의 도메니크를 3-1로 제압했다. 미들급의 정용석도 1화 앞발 밀기로 칠레의 덴조 젠테노를 다 운시키고 1-0으로 판정승했다.

또 여자 밴텀급의 정남숙은 미국의 다이안 머레이를 맞아 공방전 끝에 득점없이 비긴 후 우세승했다. 그러나 미들급의 김현희는 1화전에서 복병 네델란드의 드나에게 1-2로 판정패, 한국선수로는 유일하게 예선탈락했다.

이로써 한국 남자대표팀은 금7, 은1개로 대회 9연패를 달성했고 여자팀은 금5, 동2개로 지난 97년 제1회 세계대회(바르셀로나)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해 동반우승의 감격을 안았다.

올림픽 정식종목 가능성 시험

올림픽 정식종목채택의 시금석이 될 이번 대회는 단일종목 세계선수권대회로는 매버드 규모로 치러졌고 헝거리, 안도라, 부탄 등 6개국이 최초로 세계무대에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수들이 과거의 기술을 답습, 난이도 높은 기술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는 지적이 었다. 한편 심판들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채점방식 때문에 판정시비도 있었다.

아쉬움을 남기고

불과 2백 7십여 명의 적은 인원으로 약 5개월에 걸친 준비에 비해 거의 세배의 선수단과 참관인, VIP, 그리고 관중 등을 맞아 일사 불란한 대회운영은 성공적이 었다.

특히 체육부의 국고자원을 받아 서울올림픽 전산망에 버금가는 TACOS(태권도 경기운영 전산시스템)를 개발, 등록, 대진추첨 및 대진표작성, 경기결과 등 거의 전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대회운영을 하였다. 그리고 올림픽 후에 기증받았던 매트, 보호구 등 경기용구의 사용으로 경비를 절감, 오히려 5백여만 원의 흑자를 남겼다.

그 감격의 발자취를 따라

◆종합 순위 (종합점수제 채택)

남자	1위	한국
	2위	터어키
	3위	이집트

여자	1위	한국
	2위	미국
	3위	대만

◆남자 체급별 입상자

핀급	1. 권태호	KOR
	2. Chang Jung San	TPE
	3. Juan Moreno	USA
	Harun Ates	TUR
플라이급	1. 김철호	KOR
	2. Turgut Ucan	TUR
	3. Fariborz Dancsh	IRI
	Salab Abdel Hamid	EGY
밴텀급	1. 함준	KOR
	2. D Alise Domenico	ITA
	3. Ilberberth Vhrstian	FRA
	Abdullah Nagrani	KSA
페더급	1. 장혁	TPE
	2. Hubert Sinegre	FRA
	3. Cicek Musa	GER
	Dhanaraj Rassiah	MAS
라이트급	1. 양대승	KOR
	2. Nusret Tamazanoglu	TUR
	3. Lee Jae Hoon	CAN
	Joseph Rocamora	FRA
웰터급	1. 이현석	KOR
	2. Humberto Noramburna	CHI
	3. Dante Pena	PHI
	Khaled Mahmoud Fawzi	EGY
미들급	1. 정용석	KOR
	2. Renzo Zenteno	CHI
	3. S.II. Zahedi II.G	IRI
	Jari Kaila	FIN
헤비급	1. Amr Khairy Mahmoud	EGY
	2. 최상진	KOR
	3. Victor Bateman	AUS
	Farzad Zaraksh	IRI

◆여자 체급별 입상자

핀급	1. Chin Yu Fang	TPE
	2. Monica T. Amarilla	MEX
	3. Sita Kumari Rai	NEP
	김지향	KOR
플라이급	1. 원선진	KOR
	2. Pai Yun Yao	TPE
	3. Mayumi Pejo	USA
	Anita Falieros	AUS
밴텀급	1. 정남숙	KOR
	2. Diane Murrar	USA
	3. Chen Yi An	TPE
	Aysin Haktanir	TUR
페더급	1. 김소영	KOR
	2. Kim Dotson	USA
	3. Patricia Mariscal	MEX
	Palacios Raouel	ESP
라이트급	1. 이은영	KOR
	2. Liu Chao Ching	TPE
	3. Benitez Elena	ESP
	Seyda Serefoglu	TUR
웰터급	1. Anita Silsby	USA
	2. Annemuke Buys	NED
	3. Ayse Alkaya	TUR
	김지숙	KOR
미들급	1. Lydia Zele	USA
	2. Marci King	CAN
	3. Vega Antonia	ESP
	Hsu Ju Ya	TPE
헤비급	1. 정완숙	KOR
	2. Yvonne Franssen	CAN
	3. Yang Hsi Chun	TPE
	Santana Yolanda	ESP

세계 태권도연맹 소식



**태권도 가족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히 움직인다**



■ 아디다스 - WTF '97 세계대회 후원계약

아디다스 코리아와 세계연맹, 조직위는 10월 1일 세계연맹 사무국에서 1997 홍콩세계대회의 '주후원자 및 공식장비공급업체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체결을 위해 홍콩조직위측에서 Kenneth SHIU 부위원장, Terry K.H. LAU 사무국장, Kwong Wing & Co의 Eric SHIU가 서울 방문.

■ 7회 올림피아게임에 태권도 빠져

99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제7회 올림피아게임의 경영총책임자 Danie G. Malan은 세계연맹에 보내온 9월 25일자 서신에서 9월에 열린 아프리카 스포츠 최고협의회(SCSA), 아프리카 NOC연합 등의 회의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 제7회 대회에 태권도를 넣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한편 아프리카 NOC연합(회장 Jean-Claude GANGA)의 20차 집행위원회 및 7회 총회는 11월 18~23일 가봉의 리브레빌에서 열릴 예정이다.

■ 31차 GAISF 국제경기연맹 총회

31차 GAISF 일반회의 및 총회가 독일 Duisburg에서 10월 16~19일 열렸다. GAISF 회장인 김충재를 비롯, 세계연맹측에서는 Josiah Henson부총재, 이금홍 사무총장 등이 참석.

■ 19회 동남아시아게임 태권도 경기

세계연맹의 송상근장장이 동경기에 기술대표로 참석키 위해 10월 9~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출장.

■ 홍콩조직위 - 세계연맹 TV방영권 협상

세계연맹의 최만식 부장이 10월 15~16일 홍콩조직위 방문, TV방영권 등 세계대회 관련 문제들을 토의하고

돌아왔다.

■ 97년 제4차 국기원 고단자 승단심사

97년 제4차 국기원 고단자 승단심사가 12월 6일 국기원에서 열린다. 신청은 11월 26일까지.

■ 유럽태권도연맹, 홍콩서 집행위회의

유럽태권도연맹이 홍콩 세계대회에 즈음하여 11월 17일 대회 공식 호텔인 Miramar Hotel에서 집행위원회의를 연다.

■ '97 세계대회 신청접수

이번 10월초까지 홍콩조직위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국가는 총 77개국으로 선수 580명, 임원 323명에 이른다.

국가협회 소식

바베이도즈

바베이도즈 태권도협회가 7월 19일자로 임시총선에서 집행부를 선출.

회장: Ogej Dottin

서기: Andre Bryan

카타르

걸프만 국가연합 제1회 남자 주니어 태권도협회가 8월 28~2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다. 5개국에서 37명

THE WORLD TAEKWONDO FEDERATION NEWS

의 선수들이 참가. 쿠웨이트가 1위, 사우디 아라비아와 카타르가 2, 3위를 차지.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태권도협회는 9월 1일 총회에서 임기 2000년까지의 새 집행부 선출.

회장: Mamadsafoev Chirindjon

사무총장: Jodjaev Ismat

멕시코

멕시코 태권도협회의 20명 대표팀이 2차 한국전지훈련. 9월 4~5일 국군 상무대팀과 합동훈련.

쿠웨이트

한국지하철공사 선수출신의 김득영 사범(5단)이 Kuwait Judo & Taekwondo Federation 초청으로 대표팀 코치로 계약.

덴마크

고정정 사범이 이끄는 덴마크팀이 9월 21일 한국방문. 전주, 광주, 서울 등서 전지훈련.

한국

태권도시범단 아프리카순방, 3개국(남아공, 케냐, 스와질랜드) 10월 15일~ 11월 1일.

요르단

요르단 태권도협회는 10월 1일자로 부임한 새 집행부 발표.

회장: Tahseen Shurdum

사무총장: Majid M. Hussein

볼리비아

볼리비아 태권도 발전에 끼친 공로를 인정, 10월 초 코차밤바시장 Manfred Reyes Bagigalupi가 명예 4단, 코차밤바시립체육관 총담당 Moreno Lauza가 감사장을 세계연맹으로부터 받았다.

레소토

10월 5일 레소토 태권도협회 회장 Augustinus Makhula Mosakeng이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연맹으로부터 명예 5단을 받았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무술협회의 Taekwondo Section 회장은 Ms. Schirtz Lea.

토고

토고태권도협회 새 팩스번호는 228 21 45 46.

폴란드

포즈난 지역번호 '61' 뒤에 8을 덧붙여야 한다. 따라서 폴란드 태권도협회의 팩스번호는 48 61 866 34 10

알바니아

알바니아 무술협회는 그동안 발칸대회, 오스트리아 오픈 등에 참가. 정부가 관련된 금융사기로 인한 국내 불안에도 불구하고 올 연말 승단심사 및 국가대회를 준비중이라고.

새 가입국들

아이티가 10월 2일, 소말리아가 10월 4일 가입.

아이티태권도협회(Union Haitienne de Taekwondo)

회장: Jean Robert Theodat

Run Jeunes & Renocule #8

Port-au-Prince, Haiti

전화: 509 46 3581

전화/팩스: 1 617 738 3304(미국)

소말리아태권도협회(Somali Karate & Taekwondo Federation)

회장: Aweys M. Abati

5 Gabalaya st, 11567-EI Borg.

Cairo, Egypt(임시)

전화: 20 2 3412497/3416730

팩스: 20 2 342 0114



두억시니

〈연재 제10회〉

호로아 글·그림

줄포에 상륙한 삿갓 쓴 8명

아직 아침 저녁 날씨가 쌀쌀하니까 8명 모두 두루마기를 걸친 것까지는 그렇다치고 한결같이 삿갓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어떤 까닭일까?

어젯밤 늦게 부산으로부터 줄포항구에 닿았다는 큰 돛단배로부터 날이 밝자 내린 8명은 그 차림과 품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두루마기가 모두 검정색인데 삿갓을 쓴데다 그 가운데 한사람만 몸이 뚱뚱한 뿐 나머지 7명은 거의 비슷하게 키는 중키였지만 군살이 없어 날쌔보였고 손에는 모두 목직 한 지팡이를 지니고 있어 마치 무사들의 집단 같았다.

부두를 빠져나가던 8명 가운데 뚱뚱한 사나이가 「쌍과부집」이라는 주막집 앞에서 잠시 멈춰거리더니 일행의 인솔자인 듯 싶은 사나이에게 컹속말로 무엇인가 속삭였다.

인솔자는 아무말 없이 고개만 끄덕여 승낙의 뜻을 나타내더니 이내 일행을 이끌고 발걸음을 재촉한다.

『어서 오십시오. 아직 두부는 만들지 못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이 집은 두부맛으로 이름난 집인 것 같다.

「쌍과부집」이라는 육호를 그대로 믿는다면 두 과부 가운데 한사람이라야 될 30대 가량의 주모가 안에 들어서는 삿갓 쓴 뚱뚱한 사나이를 맞아들인다.

『지금은 선지국과 제육(돼지고기) 밖에 없소. 그것에다 막걸리라도 한잔 드시려우』

주모의 말에 대꾸는 않고 뚱뚱한 사나이는 삿갓을 벗어 얼굴을 드러낸다.

『주모, 무정하구려. 벌써 날 잊었나?』

들던 목소리라 순간 어리둥절해졌던 주모의 얼굴에 곧 두려움 어린 웃음이 퍼졌다. 차림새는 달라졌지만 상대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아니…… 기무라 어르신 아니세요? 그대 그동안 어디를 다녀오시느라고 통 뵈 수가 없었어요?』

주모의 말투부터 달라졌다.

그렇다. 그 기무라다. 줄포에서 일본으로 쌀을 내다 팔면서 이 땅의 농민들을 착취했던 기무라가 난데없이 검은 두루마기에 삿갓차림으로 불쑥 나타났으니 주모가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가을 조선 하역인부에게 못되게 굴다가 두억시니에게 애견인 도사견을 문자 그대로 박살 당하고 혼이 났던 그 기무라다.

악명 높았던 기무라는 반감지 않았나. 기무라의 돈주머니는 반겨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주모다.

『주모, 일행이 있어 빨리 따라가야 하니 막걸리 한사발에 제육 몇접만 주구려』

방에 오를 생각은 않고 마루에 걸터앉은 기무라는 연신 주막 밖의 움직임에 신경쓰면서 주문했다.

『주모, 요즘 이곳 분위기는 어떤가? 난리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되지?』

하도 이 땅에 오래 살다보면 일본 사람도 돼지고기를 새우젓에 찍어먹게 되는 것인가. 기무라는 다른 일본사람같이만 냄새난다고 외면하기 싫상인 새우젓 찍은 돼지고기를 널름 입에 넣는다.

『나리 말썽대로입쪄. 난리통에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요. 그저 그날 그날 끼니 잇기가 급하죠』

『그럴테지. 암. 하루속히 난리가 가라앉고 무고한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어야 할텐데……』

터진 입이라고 기무라는 자신이 마치 인자한 인물이

나 되는 것처럼 조선사람들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처럼 주모를 토닥거렸다.

『그렇습쇼, 소인네들이야 그저 세상이 조용하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소원입쇼.』

남은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언제 배웠는지 조선사람처럼 소매로 입을 닦은 기무라는 가장 궁금한 질문을 던졌다.

『그 뭐가, 동학군의 우두머리인 전봉준은 소문대로 백성들 사이에 덕망이 높은가?』

『아니, 나리는 어디 다녀오셨길래 그것도 모르십니까? 전봉준 장군님이야 저희들 못사는 사람들에게겐 하나님 같은 분이시죠.』

『흐음, 그렇군. 그렇다면 동학군이 진을 치고 있다는 백산에는 농민들이 많이 집결했겠구먼?』

술값 치고 넉넉하게 엽전 몇냥을 마루에 놓고 기무라는 자리를 일어났다.

『그럼요, 모두 백산으로 백산으로 몰려들고 있습쇼. 아니, 지금쯤은 전주감영으로 쳐올라가고 있을지도 모르쇼.』

『잘 마셨소, 주모. 또 보세.』

궁금한 이야기를 다 들은 기무라는 다시 샷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막집을 나서 켄걸음으로 앞서간 일행을 따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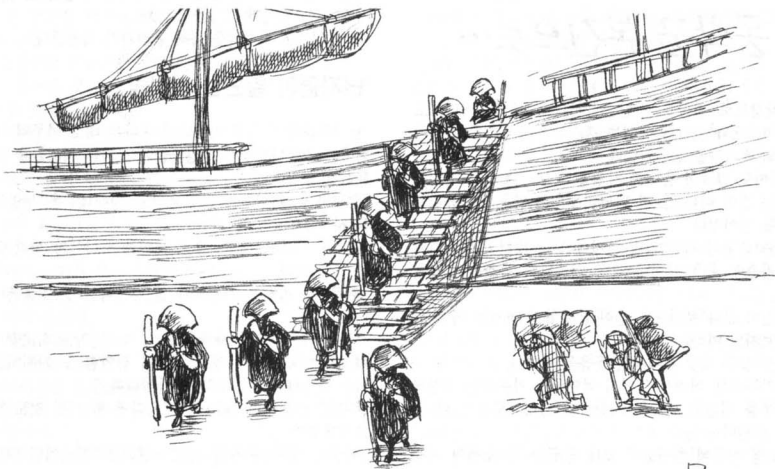
동학군 본진으로 향하는 난자들

돈을 아끼지 않고 마련한 말을 탄 기무라가 일행에 따라붙는데 그래도 한 시간은 걸렸다.

쌍과부집에서 막걸리 한사발 마시고 주모로부터 동학군에 대한 민심의 움직임을 듣고서 바로 말을 물었는데도 한시간 뒤에야 일행을 만날 수 있었으니 일행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짐작이 갈만하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7명은 암살과 정보수집을 위해 어릴 적부터 특수훈련을 받아온 난자(忍者)들이라 일본말로 「하야아시」(速足=달리는 것과 걷는 것의 중간쯤 되는 걸음), 우리말로로는 축지법(縮地法=도술로 지맥을 축소하여 먼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법-그러나 실제로 그런 법이 있을 수는 없고 빠른 걸음을 뜻한다)으로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다게다(武田)씨, 주모의 이야기로는 전봉준 전영에 많은 농민들이 몰려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동학군이 전주성을 향해 진격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답니다.]

기무라는 인술자를 다께다라 불렀다. 다께다는 워낙 말수가 적은 인물인지 기무라의 보고를 받고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다께다씨, 제 걸음으로는 도저히 여러분을 따라갈 수 없으니 저는 이대로 말을 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땀투성이가 되어 있는 기무라의 간청에 이번에도 다께다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했다.

일행이 가파른 오르막길에 이르렀을 때 맞은 편에서 언덕길을 내려오는 젊은 두 아낙네와 마주쳤다.

아낙네들은 머리에 합지박을 이고 짧은 저고리 사이로는 젖무덤이 아낌없이 드러나 있었다.

“젖가슴 드러낸 건 아들 낳은 자랑” 8명의 닌자가 동학군 본진으로...

삿갓으로 얼굴을 가린 닌자들은 정면을 바라보고 스쳐갔으나 삿갓 속에서는 짐승같은 눈빛으로 아낙네들의 젖가슴을 힐끔거렸다.

아마도 그들이 중대한 사명을 띠고 서둘러 목적지로 가는 길이 아니었으면 아낙네들은 봉변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낙네들이 저만치 멀리 지나간 뒤 수령인 다께다가 닌자들의 속을 들여다 보듯 나즈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이 끝나 부산으로 돌아갈 때까지 여자는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닌자들은 삿갓 속에서 쓴웃음을 지었다.

『기무라상, 어째서 조선의 여인네들 가운데는 저렇게 젖통을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닌데……』

일행 가운데 한사람이 못내 궁금한 듯 조선의 사정에 밝은 기무라에게 물었다.

『아, 그런 이렇습니다. 아들 낳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 젖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겁니다.』

『호오, 아들을 낳은 표시라……?』

『그렇죠, 시집의 혈통을 잇는 아들을 낳아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젖가슴을 내놓는 겁니다.』

『호음, 그것 참 재미있는 풍습이군.』

일본공사관의 밀명에 따라 일본 낭인들의 결사(結社) =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결합관계를 맺은 단체인 천우협(天祐協)이 파견한 닌자부대는 조선의 풍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고 젖가슴을 드러내는 여인네들은 모두 조선의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그렇데지, 양반대 귀수들이야 그렇게 할 까닭이 없지.』

심심풀이 삼아 실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언덕마루턱에 이르기 직전 다께다가 인기척을 느꼈다.

『가만…… 마루턱 저쪽에 스무나브명이 있네.』

순간 일행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다.

『누구일까요? 이런 시골길에 스무나브명이나 몰려있다니……?』

『둘 가운데 하나겠지. 동학군 아니면 감영의 군사일 거야. 어느 쪽이건 신경쓸 것 없네.』

다시 일행은 마루턱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닌자들이 일으킨 피비람

닌자부대의 수령인 다께다가 내다본 대로 마루턱 넘어에는 스무나브명이 감영군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여보! 여보! 잠깐 이리 오시오, 당신네들은 무엇하느 사람들시오?』

감영군 가운데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나이가 삿갓 쓴 8명을 막았다.

조선말을 잘하는 기무라가 앞으로 나선 것은 물론이다.

『우리들은 전국의 사찰을 돌며 국태민안(國泰民安 =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의 생활이 편안함)을 기원하고 있는 불승(佛僧 = 불교의 중)들입니다.』

『뭐요? 스님들이시라……. 그렇다면 뭐 가진 것도 없으시겠구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관(官 = 관리)도 산적이나 다를 바 없게 되는 모양이다.



동학도들을 검색하기 위해 나와 있다는 감영의 군졸들은 검문을 빙자해서 지나가는 백성들로부터 닭, 곡식 등을 약탈하고 있었다.

감영군의 지휘관은 삿갓 쓴 사나이들이 중이라고 하자 뜰어벌 것이 없기 때문에 재수가 없다는 듯 손짓으로 지나가라고 했다.

『자아, 스님 어서 지나가쇼』

군졸 한사람이 장난치듯 삿갓 쓴 사나이의 등을 타친다는 것이 헛손질하면서 등에 진 개나리 붓짐(걸어서 먼 길을 갈 때 짊어지는 조그만 붓짐)을 건드렸다. 눈이 휘둥그레진 군졸은 그 개나리 붓짐을 꼭 움켜쥐었다.

『아니... 이건 엽전 꾸러미가 아닌가?』

이 말을 듣자 군졸들은 모두 고개를 삿갓 쓴 사나이들에게 돌렸다.

『지금 뭐라고 했냐? 엽전 꾸러미라고?』

감영군의 지휘관이 군졸에게 물었다. 8명의 삿갓 쓴 사나이들은 모두 똑같은 붓짐을 지고 있었다.

그 붓짐 속의 돈은 그들이 목적을 이룰 때까지의 군자금이다.

군졸들은 8개의 붓짐이 모두 엽전꾸러미일 경우 그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된다는 주판알을 머리 속에

서 툇기고 있었다.

군졸들은 엄청난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처참한 액운이었다.

닌자부대의 우두머리인 다께다는 냉정한 눈으로 군졸들의 표정에 탐욕의 그림자가 깃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게 처거라! 아무래도 너희들은 수상하니 등에 진 붓짐을 풀어서 내려 놓아라』

감영군의 지휘관이 다급한 목소리로 명령한 순간 다께다의 오른손이 하늘을 향해 뻗었다.

그것이 공격신호였다.

삿갓 쓴 사나이들은 일제히 지팡이 속에 숨겨 넣은 칼날을 뽑아들어 조용히, 그러나 재빠르게 군졸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요란한 기합소리를 내며 싸우는 무사들과 달리 닌자들은 소리를 내지 않고 싸운다.

은밀하게 일을 치른 뒤 연기처럼 사라져야 하는 것이 닌자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오악!』

『사... 사람 살려』

살해당하는 군졸들의 비명은 길지 않았다. 닌자들의 칼은 능숙하게 군졸들의 목 대동맥을 베고 가슴의 심장을 찌르는 등 매우 효율적으로 살육(殺戮=많은 사

람을 마구 죽임)을 자행해 나갔다.

감영군의 군졸들은 너무나 무자비한 난자들의 살인 기술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차례로 쓰러졌다.

마치 뱀과 눈이 마주친 작은 동물들이 마취된 것처럼 주눅이 들어 움쭉달쭉 못하고 뱀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고 마는 것과 같은 형국(형편이나 판국)이었다.

도살장에서 짐승을 잡듯 군졸들을 저승으로 보내는 살인작업 속에서도 난자부대의 수령인 다께다의 지시는 비정하기만 했다.

『칼날이 상하지 않도록 빠는 자르지 말고 죽여라!』

제 아무리 명도(名刀=이름난 좋은 칼)이라 해도 단단한 사람뺨를 자르다 보면 칼날이 상해 심한 경우는 툭니처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칼날이 무너지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다께다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칼 쓰기의 달인인 난자들은 결코 뺨을 자르는 둔탁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군졸들의 목숨을 끊고 있었다.

이런 경황 속에서도 몸놀림이 빠르고 그런대로 배짱 있는 몇 사람의 군졸은 비밀길을 달려 내려가면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그들도 목에 「슈리켄」(水裏劍=일본말, 우리나라의 표창처럼 손으로 던지는 작은 칼)이 꽂혀 고꾸라지고 만다. 스무나브명의 군졸이 시체가 되어 뒹구는데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성품이 패 못된 편인 안내역 기무라도 난자들의 너무나도 잔혹한 사람 배정 노릇에 전율했는지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다께다가 차분히 부하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틀림없이 죽었는지 다시 확인해라. 그리고 「가에리찌」(返血=일본말, 사람을 해치면서 자신에게 튼 피)가 묻은 사람은 피를 닦아내고 두루마기를 뒤집어 입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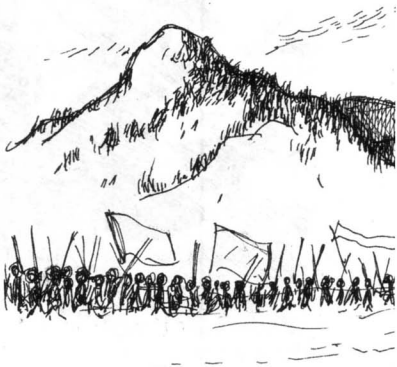
피 묻은 복장으로 거리를 활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들은 안팎이 모두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흰색이면 눈에 띄기 쉬운 핏자국도 검은색에서는 무슨 얼룩인지 알겠 구별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핏자국으로 얼룩진 검은 두루마기도 뒤집어 입어버리면 감쪽같이 살인의 흔적이 감추어지게 마련이다.

난자부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군사(軍師), 급한 전갈이요.

동학군이라는 거대한 용은 전주(全州)를 향해 비늘을 번뜩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3월 26일, 그동안 진을 치고 있던 백산을 나선 동학군은 화호 나무터 산덕정으로 진출해서 포를 쏘고 함성을 지르며 사기를 드높인 뒤 전주로 향하는 태세를 갖추었다.

3월 29일 저녁 태인으로 쳐들어 간 동학군은 그곳의 무기를 거둬들이고 다음날에는 말머리를 원평으로 돌려 공격했다.

「전주로부터 감영군이 내려온다」는 급한 보고가 날아들자 장군 전봉준은 복면 군사 두역시니에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의논했다.

『감영군과 정면충돌해도 우리가 이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우리



동학군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역시니는 농민으로 이루어진 동학군이 전주를 점령하려면 초전에서 감영군의 넋을 빼앗는 큰 타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야 동학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반대로 관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두역시니는 초반에 동학군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고 전봉준에게 말했다.

전봉준은 두역시니의 말에 동감이라는 듯 몇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동학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감영군을 박살내려면 기습 밖에 없습니다. 적의 허를 찔러야 합니다.』

『그래, 군사(軍師)에게는 기습의 마땅한 술책(術策=남을 속이기 위한 술수)이라고 있소?』

『장군, 우리가 미리 황토재에 매복해 있다가 그곳으

로 감영군을 유인해서 기습하는 것이 어떻겠소?』

『황토재라? 으음, 군사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지리적으로는 안성맞춤인 기습의 지형(地形)이긴 하오만...』

전봉준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두역시니가 내놓은 기습작전을 머리 속에서 검토해 본다.

감영군이 과연 동학군이 설치해 놓은 덫에 걸려들까라는 것이 이 기습작전의 성패(成敗=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관건(關鍵=문비장으로부터 유래된 말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 될 것 같았다.

『장군, 감영군을 황토재로 유인하는 데는 한가지 계획(計策=피를 쓴 방책)이 있습니다.』

전봉준의 속을 꿰뚫어 본 듯 두역시니는 두령이 궁금해 여기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허허! 그래, 그 계획이란...?』

『우리 동학군 몇십명을 무장(茂長)의 보부상으로 변장시켜 감영군에 침투시켜 그들로 하여금 감영군을 황토재로 이끌고 오도록 할 작정입니다.』

『보부상? ...그것 참 그럴 듯 하오』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던 전봉준의 얼굴이 금세 풀려진다.

보부상(裸負商)이란 봇짐장수와 등짐장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소가 끄는 소달구지, 말이 끄는 마차도 별로 많지 않았고, 또 있다는 치더라도 길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 조선팔도의 산물들은 거의 보부상들에 의해 교류됐다.

오늘날에도 짐을 실은 화물자동차가 길을 달릴 때 교통경찰이 범규위반 여부를 따지듯이 당시에든 보부상은 각 고을의 관(官)이 짐의 내용물을 검사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따졌으므로 보부상은 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난리라도 날라치면 그들은 관의 지시에 따라 군수물자 수송, 병력으로서 가세, 첩보수집 등 관군과 다를 바 없이 움직였다.

보부상이 관군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난리통에 보부상을 가장해서 관군에 스며드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관군과 보부상을 예전부터 얼굴을 익힌 사이도 아니고 보부상의 이마에 글씨로 「보부상」이라 써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군에는 보부상도 몇명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가짜 보부상 집단을 꾸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 없었다.

『그것 참 묘안이군』

전봉준이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억시니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로 그때다. 요란한 말 발굽 소리가 울리더니 군막 앞에서 멈추고 황급히 말에서 내리는 기척이 느껴졌다.

피문은 비둘기가 날아왔다.

땀으로 흠뻑 젖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말에서 사뿐히 내려선 사나이는 두억시니처럼 얼굴을 복면으로 싸매고 있었다.

군막 밖을 지키고 있던 동학군들은 일제히 그 복면 무사에게 창을 겨누고 암호를 던졌다.

『하느님바람!』

하느님바람이란 원래 뱃사람들의 말로 복서풍을 뜻한다. 차가운 겨울바람이다.

『얼음!』

복면무사의 입에서는 암호의 또 한 짝인 대꾸가 나왔다.

동학군은 사흘 단위로 암호를 정해놓아 감영군의 정탐들이 진영에 스며드는 것을 막고 있었다.

암호의 대꾸를 모르거나 잊어버렸다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문초가 가해진다.

간자(間者=스파이)를 가려내기 위함이다.

『군사(軍師)의 수하이신 지리산패의 한 분이시군』

동학군들은 나뻐있던 창을 거두면서 길을 열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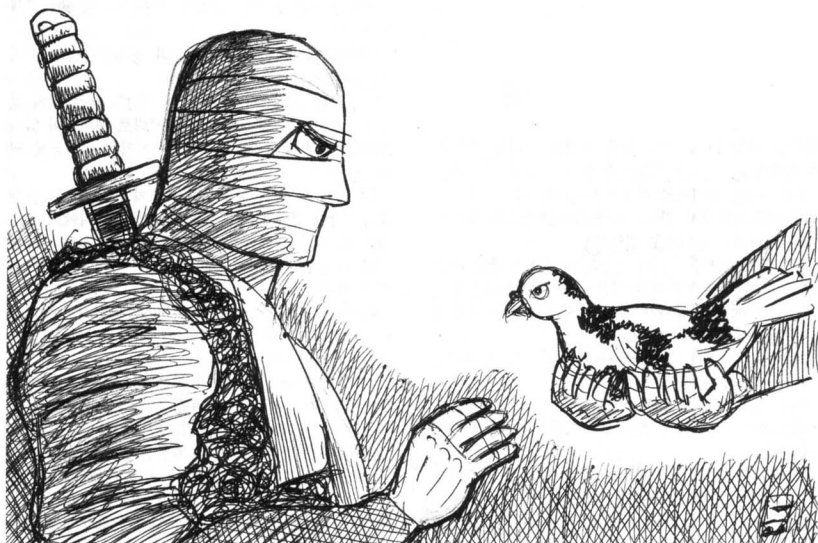
복면무사는 아무말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하고는 군막 안으로 들어섰다.

전봉준과 두억시니, 그리고 참모진들의 눈이 안으로 들어온 복면무사에게 쏠렸다.

그래도 복면무사는 전봉준을 알아보고 그에게 먼저 인사한 뒤, 자신의 수령인 두억시니에게도 두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키는 인사를 했다.

두억시니 역시 아무 말 않고 가슴 앞에 두팔을 ×자로 교차시켜 답례했다.

복면무사는 지리산패 의사소통수단인 수화(手話=주



로 귀 막히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손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대화방법)로 두역시니에게 말문을 열었다.

『두령! 천안의 살랭이가 죽었습니다.』

『……』

고부관아에 잠입해 있던 수하인 삼살개가 알려준 이 비보(悲報=슬픈 소식)에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 두역시니도 한동안 할 말을 잊었다.

〈살랭이가… 살랭이가 죽다니… 그토록 무예가 뛰어난 살랭이가 왜 죽었다 말인가. 몸쓸 염병(染病=전염병)의 준말. 예전에는 주로 장티푸스를 가르키는 말이었다)이라도 겹겹단 말인가. 아니면……〉

순간 두역시니는 무엇인가 짙어지게 있었다.

그리고 두역시니의 그 예감은 들어맞았다. 두령의 반응을 잠시 지켜보던 복면무사 삼살개는 품속에서 피 묻은 비둘기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더니 두역시니에게 내밀었다.

〈역시 그렇구나. 살랭이는 정말로 죽었구나. 그는 피 묻은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숨을 거둔 거야〉

지리산패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전서구(傳書鳩=통신용 비둘기)를 날려보내 자기 편에게 정보를 알리는 통신방법을 쓰고 있었다.

지리산패의 또 하나의 통신 수단은 봉화(烽火)였다.

두역시니는 사흘마다 밤에 봉화로 동학군의 암호를 그의 수하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봉화는 높은 산봉우리 마다 중계되어 나라 구석구석까지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비둘기로 소식을 전할 경우 서울에서 일본공사관에 잠입해 있는 여우, 청국공사관에 스며들어 있는 너구리 등은 그들의 두령인 두역시니에게 날려보낼 비둘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원의 살모사에게 날아갈 비둘기를 한 마리씩 각각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동학란이 일어나 두역시니가 전봉준을 따라 이동하게 되자, 두역시니에게 직접 비둘기를 날려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몇 차례의 중계를 거쳐 두역시니에게 정보가 전달되거나 이번처럼 두역시니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부관아의 삼살개를 통해 보고가 전달되기 마련였다. 피묻은 비둘기는 그 비둘기를 지니고 있던 지리산패가 치명상을 입었음을 뜻한다.

살아날 가망이 없는 깊은 부상을 입었을 때 비둘기에게 자신의 피를 묻혀 날려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들 사이에 미리 정해진 약속이었다.

눈을 감고 수하의 명복을 비는 두역시니의 두 눈은 복면 속에서 젖어 있었다.

그 모습을 삼살개는 감동에 휩싸이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저 귀신같은 두령이 수하의 죽음에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신다니……〉

피 묻은 비둘기를 받아든 두역시니는 발목에 달려있는 작은 금속통 속에 말려 들어가는 통신문을 펼쳐보았다.

「삼갑자 중이살(三甲子 中二殺)」

통신문에는 그렇게만 쓰여 있었다.

「세명의 갑자부대원 가운데 두명은 죽었다는 뜻이다.

〈갑자부대와 싸워 셋 가운데 둘은 없애고 자신도 목숨을 잃은 모양이구나.〉

눈을 감은 두역시니의 머리에는 3명의 갑자부대원과 혈투 끝에 두명을 쓰러뜨리고 깊은 상처를 입은 살랭이가 겨우 도망쳐서 비둘기에 피를 묻혀 날려보내는

“피묻은 비둘기 살랭이가 죽었다” 암살부대가 전주로 오는데…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다.

『삼살개. 전국의 수하들에게 연락해서 살랭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되, 각자 제 자리를 떠나지 말고 말은 바 임무를 다하도록 지시를 전해주게. 수고했네. 돌아가라.』

수화로 두역시니의 지령을 받은 삼살개는 들어왔을 때처럼 전봉준에게, 그리고 다음에 두역시니에게 인사하고는 군막을 빠져나갔다.

『민비의 직속 암살부대인 갑자부대가 이리로 내려오고 있소. 전봉준 장군을 암살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소.』

더 이상 참도들에게 감출 수가 없어 두역시니는 민비의 전봉준 암살음모를 털어놓았다. 군막 안에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다음 호에〉

#

태권도 산책



홍종수

태권도 연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국가원 부원장
전 대한 태권도협회
상근 부회장

우리는 삶 속에서 길 도(道)자를 많이 쓴다. 도의(道義=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와 의로운 일), 도덕(道德=인류의 대도), 도덕성(道德性=도덕적 행위가 나타나게 하는 품성, 도덕의 본성에 맞거나 도덕적으로 옳은 것),正道(正道=올바른 길) 등 도(道)는 길을 나타내지만 사람이 머리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는 모습을 글자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와 의로운 일들을 뜻한다.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 우리 태권도인은 태권도의 길이 있듯이 학자에게는 문도(文道=학예의 길, 문인이 닦아야 할 길)가 있고 기업인에게는 상도(商道=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도덕)가 있고 교육자에게는 사도(師道=스승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인간에게는 어떤 분야에서나 어떤 위치에서나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다.

고려(高麗)말 대정치가로서正道(正道)를 밝혀 목숨을 걸고까지 나라를 구하려고 진충보국(盡忠報國=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음)함으로써 7백년이 지난 오늘에도 온겨레의 추앙을 받는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야말로 올바른 길을 살아 가신 분이다.

정몽주가 태어난 1337년은 바야흐로 고려의 나라 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때였다.

원(元=몽고)나라와 40년 남짓에 걸친 항전(抗戰)이 끝나긴 했으나 원의 부당한 내정간섭이 극심한 때였다.

14살 어린 나이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했다.

20살에 아버지 상을 당하자 효성이 지극한 정몽주

는 3년동안 묘를 지키면서 효도를 다했다. 이 소식을 들은 공민왕은 그를 후하게 표창했다.

그가 아직 말직(末職=맨 끝자리의 낮은 직위)에 있을 때 그의 스승 김득배(金得培) 장군이 간신(奸臣=간사한 신하)에게 몰려 참살 당하자 정몽주는 뒤통나게 일어나 스승의 무죄를 왕에게 상소해서 누명을 벗겼다.

그 뿐만 아니라 정몽주는 김득배 장군이 지난날 홍건적(紅巾賊)을 물리칠 때 무공(武功=전쟁에서 세운 공적)이 컸음을 온세상에 알리고 그 공적에서

고려말의 3걸 · 3은

포은 정몽주

성품 · 시문은 호방



▲포은 정몽주의 충성심은 천추에 길이 빛나고 있다.

알맞는 장례를 치르도록 간청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왕의 윤허가 내려지자 스승의 잘려진 목과 머리를 거두어 충장(忠將=충성스러운 장수)의 예(禮)를 갖추고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조

문(文=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기려 명복을 비는 글)을 바쳐 정중히 장사지내니 모든 사람들이 정몽주의 의로움을 우러러 칭찬했다.

김득배 장군을 모함하여 죽인 재상(宰相=임금을 보필하며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는 이품(二品)이상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던 말) 김윤은 반역을 시도하다가 최영(崔瑩) 장군에게 잡혀 처형됐다.

정몽주는 과거에 급제할 만치 학문이 뛰어났으면서도 성품이 호탕했으며 큰 일을 결단할 때에는 차분했다.

정몽주의 시문(詩文)은 호방(豪放=도량이 크며 작은 일에 거리낌이 없음)하며 이론에 밝고 깊이가 있어 동방이학(東方里學)의 시조로서 추앙을 받았다.

그는 이론을 몸소 실천하는 학자였다.

공민왕 21년 정몽주는 국교를 트리위하여 명(明)나

라에 파견됐다.

원나라가 점차 기술자 중국대륙 각 처에서는 원나라에 반기를 든 군웅(群雄=많은 영웅들)들이 저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으나 주원장(朱元璋)이 이들을 모두 물리쳐서 명(明)나라를 세우고 태조가 됐다.

원나라의 영향력이 시들자 고려도 자주적인 국권 회복에 힘쓰면서 원나라를 배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원나라와 명나라의 관계가 극히 험악할 때 정몽주는 주원장을 설득해서 고려 말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맺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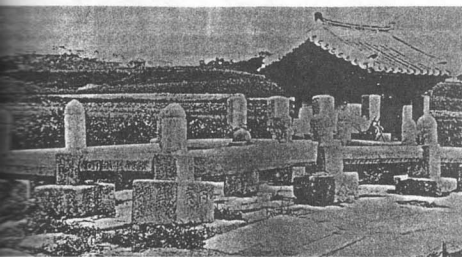
당시는 왜구에 침략으로 삼남(三南=영남 호남 및 충청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일대에서는 그들의 약탈, 방화, 살인, 폭행 등으로 백성들의 피해가 말도 아니었다. 심지어 강화섬까지 침범하는 지경에 이르자 조정은 일본의 잘못을 따지는 사신을 보내려 했으나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었다.

결국 친명파(親明派)로 물러 귀양가 있던 정몽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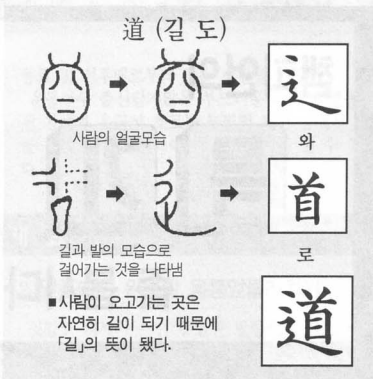
14살에 진사 합격 끝까지 정도지켜

일본으로 건너가 약탈이 아닌 물물교환의 교역(交易)을 가르치고 잡혀갔던 700여명을 10척의 배에 나누어 태우고 돌아왔다.

정몽주는 고려 말에 최영, 이성계(李成桂)와 더불어 삼걸(三傑=세사람의 뛰어난 인물)로 불리워졌고 이색(李穡), 겸재(金再)와 함께 삼은(三隱=세사람의 속세를 초월한 사람)의 한사람으로 존경과 추앙을 받았다.



▲개성의 선죽교에는 지금도 정몽주가 흘린 피가 돌에 얼룩으로 남아 있단다.



조선 태조 이성계와는 다른 길에 있으면서도 서로 상대를 존중하는 사이였다.

그들은 한 때 여진토벌과 왜구토벌에도 함께 싸워 무공을 세운 일도 있는 사이였다.

그러나 북벌에 나섰다가 임의로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되돌아 온 이성계를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역성혁명(易姓革命=덕이 있는 사람이 덕이 없는 임금을 쓰러뜨리고 새로이 왕조를 세우는 일로서 임금의 성이 바뀌는 것은 하늘의 명이 바뀌는 것이라는 데서 온 말이다)을 꾀하려 했다해서 정도전(鄭道傳) 등 이성계 일파를 정몽주는 제재했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게 된다.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정몽주가 문병을 가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李芳遠)이 그의 속을 떠보려고 - 이런들 어떠하리 / 저런들 어떠하리 / 만수산 드렁칫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 우리도 이 같아하여 백년까지 살으리 - 라고 하여가(何如歌)를 불렀다.

이방원의 이 노래는 이성계 편에 들어오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

하지만 정몽주는 - 이 몸이 죽고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 백골이 진토되어 뉘이라도 있고 없고 /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라 - 라는 단심가(丹心歌)로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밝혔다.

도저히 정몽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이방원은 수하로 하여금 선죽교(善竹橋) 위에서 철퇴로 쳐서 죽이게 했다.

신하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목숨바쳐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정몽주는 세월이 흘러도 충신의 귀감으로 빛나고 있다.

챔피언의

특 기

좀 봅시다



▲세계선수권 2연패.
김철호 (31, 삼성물산 코치)

김철호의 특기 공개

..... 얼굴 앞돌려차기 · 몸통 앞돌려차기

이번 호 챔피언의 특기에서는 지난 89년 제9회 세계대회와 91년 제10회 세계대회를 제패한 김철호(31, 삼성물산 태권도팀 여자부 코치)를 다룬다.

대회 때마다 새로운 특기 개발 9·10회 세계대회 플라이급 제패

침착하고 부드러운 성격에다 신사적인 매너를 지닌 외유내강형의 김철호는 한가지 특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요 대회 때마다 특기를 바꿔서 나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국내·외 대회에서 플라이급의 왕자로 군림했다. 대회 때마다 새로운 특기를 연구개발하여 출전하는 바람에 그의 라이벌들은 그의 특기에 대해 미리연구, 대비책을 세워놓아도 매번 전혀 새롭게 등장하는 특기로 인해 엉뚱한 기술만 신경쓰다가 허무하게 지곤했다.

이번 시리즈에도 어떤 특기를 소개할 것인가를 고르기 위해 한참 고심해야 할 정도로 그의 기술은 다양했다.

그가 세계대회 2연패를 한 후 3연패까지 연결하는데 실패한 것은 신기술 개발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털어놓았다. 아무래도 세계대회 2연패를 하고 나니 이제 좀 여유롭게 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기술 개발보다는 기존기술의 보강에 치중했더니 당장 라이벌들에게 전력이 노출되어 경기를 풀어가

가 몹시 힘들어지는 것이다.

태권도 명문인 동성고교와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상명여대 태권도부 코치생활을 하다가 잠시 공백기를 가진 후 삼성물산에 코치로 스카우트된 김철호는 훌륭한 경기전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쭐거리지 않아

동료 및 선수배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운동선수 출신답지않은 부드러운 말투와 행동, 자제된 자세와 은근히 흐르는 눈빛의 위엄 등에서 태권도를 통해 완성한 인격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기술 개요

1. 주먹 연결 반격에 이은 얼굴 앞돌려차기

이 기술은 오른발을 뒤에 놓은 오른푼자세에서 왼발 앞발밀어엮차기 공격을 통해 상대의 왼발앞발뺏다 받아차기반격을 유도한 후 이를 왼앞주먹으로 반격하면서 오른발앞돌려차기로 상대의 얼굴부위를 공격하는 연결동작이다.

주먹기술에 의한 반격 후에 곧바로 오른발 얼굴앞돌려차기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먹공격으로 인해 생긴 순간적인 정지상태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 이 짧은 순간을 놓치면 상대에게 또 다른 반격을 허용하게 되어 2차공격이 어렵게 된다. 참고로, 앞주먹이란 앞에 있는 발과 보조를 맞추며 맞은 방어와 동시에 때리는 앞손에 의한 주먹동작을 말한다.

2. 맞푼에서 윈잇발 몸통앞돌려차기

엇갈린 자세가 아닌 동일한 방향으로 서로 배가 마주보는 자세로 상대와는 반대쪽의 발을 뒤에 놓게 된다.

즉, 상대가 오른발을 뒤에 놓는 자세를 취할 때 왼발을 뒤에 놓으면 맞푼이 된다. 맞서기라고도 한다.

맞푼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격이 바로 이 기술이다. 뒤에 있는 발로 상대의 몸통을 과감하게 공격하는 것이 요령. 이때 상대는 보통 뒷차기로 반격을 시도하게 되고 누구의 동작이 보다 빠른가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게 된다. 이 공격은 주로 상대보다 장신이고 스피드에 자신이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 주먹연결반격에 이은 얼굴 앞돌려차기



1.

왼발 밀어엮차기를 시행하는 김철호 (왼쪽).

왼발 밀어엮차기로 견제해 들어가며 상대의 반격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중이다.

이때 상대가 왼발 뺏다 받아차기가 아닌 다른 기술로 반격하게 되면 김철호의 재반격도 앞주먹이 아닌 다른 것이 된다.

※오른쪽 상대는 삼성물산 소속의 전국가대표 선수인 원선진이다.

챔피언의 특기



3. 상대방의 원발 뺏다 받아치기(원발 앞돌려차기)가 개시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원앞주먹으로 반격해야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 반격을 성공할 수 있다. 막기동작을 하고 있는 뒷손을 들어올려 막기에 걸린 상대의 발도 올라가게 해 상대의 중심을 잃게하고 있다. 들어오던 상대가 멈춰서게 되므로 이때 순간적인 정지상태가 생긴다.



2. 김철호의 밀어엿차기 공격에 대해 앞발 뺏다 받아치기(원발 앞돌려차기)로 반격을 하려고 원발을 한 스텝 뒤로 빼낸 상대방. 이때 이미 김철호는 원앞주먹으로 반격하기를 결정한다.

4. 원주먹공격으로 인해 생긴 순간적인 정지상태를 놓치지 않고 뒷발 얼굴앞돌려차기를 성공시키는 김철호. 원앞주먹 반격이 성공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바로 얼굴앞돌려차기가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맞몸에서 인딧발 몸통 앞돌려차기

1.

상대와 맞몸을 이루고 있는 김철호(오른쪽) 엇몸의 경우라도 빠르게 몸을 바꾸어 엇몸을 만들어 준 후 뒷발돌려차기를 시행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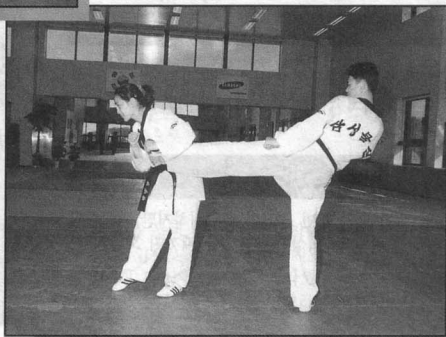


2.

김철호가 뒷발 몸통앞돌려차기를 시행하려하자 상대방은 오른발 뒷차기로 반격하려 하고 있다.(상대의 앞발이 뒷차기를 차기 위해 안쪽으로 틀어졌다) 장신이고 스피드가 좋은 김철호는 과감하게 뒷발 앞돌려차기를 실행하고 있다.

3.

상대의 뒷차기는 김철호의 앞돌려차기의 몸통에의 충격에 의해 무력화 됐다. 스피드에 아주 자신이 있거나 장신인 경우에 매우 유리한 기술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도: 박 영 철

'76 미스터 코리아
'82, '86, '88 미스터 아시아
'88 미스터 유니버스 3위
'89 월드게임 2위
하이아트호텔 체력관리센터 부장

전문가가 지도하는

태권도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시범 : 이 호 열 (태권도 공인 7단 / 국기원 심사위원)

행잉 레그 레이즈

HANGING LEG RAISE

철봉에 매달려 다리 들어 올리기

자 세

두 손으로 바를 어깨 넓이 보다 약간 넓게 잡고서 매달린다.

동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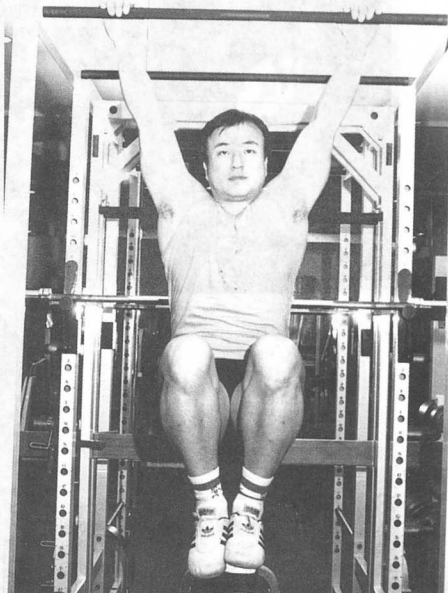
- 팔을 펴서 매달린 상태에서 무릎을 서서히 구부리며 다리를 들어 올린다.
- 두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배꼽높이 정도까지 들어 올렸다가, 다시 천천히 다리를 내려 전신이 일직선이 되게끔 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호 흡

임으로 숨을 내뿜으며 무릎을 구부리면서 다리를 배 쪽으로 잡아 당겼다가 코로 들어마시며 천천히 다리를 내린다.

반복횟수

보통 10번 내지 15번 정도가 바람직하지만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면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되풀이 하는 것이 좋다.



주의점

1. 오랫동안 매달리기가 어려울 때는 두 손을 엇갈리게 바를 잡으면 좀더 오래 매달릴 수 있다.
2. 무릎을 너무 올려서 가슴높이 이상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3. 몸이 앞으로 움직이는, 즉 탄력이나 반동을 이용하게 되면 복부근육에 집중적인 자극을 줄 수가 없다.

응용운동

- 매달리기가 어려울 때는 전완근, 즉 앞 팔을 바에 얹고서 실시하면 쉽게 할 수 있다.
- 의복사근을 자극시키려면 다리를 트위스트하면서 실시한다.

발달시키는 동작

-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 있어서 스피드나 순발력의 증진.
- 킥 동작이나 편지력의 강화.

발달 근육

- 복직근
- 외복사근
- 내복사근
- 척추 기립근
- 대퇴 사두근

리버스 트위스트

REVERSE TW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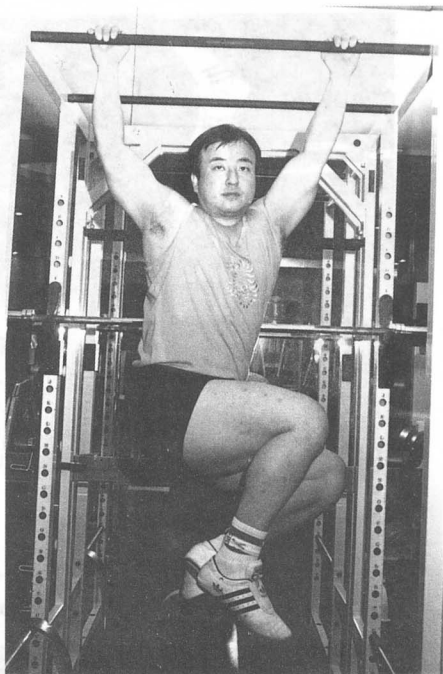
자세

등을 대고 반듯이 누운 자세에서 두 팔을 옆으로 벌려 곧게 펴고 두 손바닥을 바닥에 놓는다.

두 다리를 붙여서 위로 들어 올린다. 이때 무릎을 45도 정도 구부리거나 혹은 종아리를 교차시키도록 한다.

동작

두 다리를 한쪽으로 틀면서 머리는 반대쪽으로 돌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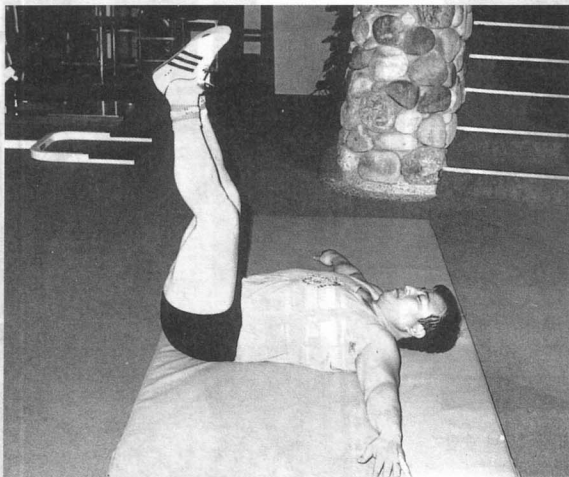


다. 이때 한쪽으로 트위스트한 두 다리의 무릎이나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한다. 다시 두 다리를 반대쪽으로 트위스트하면서 얼굴을 두 다리가 트위스트되는 반대쪽으로 돌린다.

호흡

코로 숨을 들이 마시며 두 다리를 바닥쪽으로 트위스트하고 입으로 뱉으면서 원위치로 돌아간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려 실시하다가 점차로 무릎을 펴면서 이행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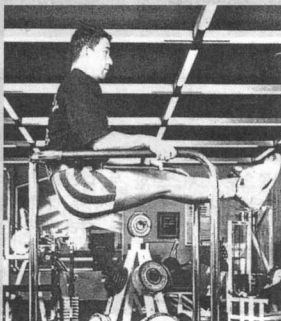


동작을 실시하는 도중, 넓적 다리는 항상 수직으로 위로 향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넓적다리가 지나치게 상체쪽으로 구부러져 트위스트 동작이 이루어질 경우 허리를 지나치게 바닥에서 들어 올리게 되어 초보자나 허리의 유연성이 약한 사람에게 허리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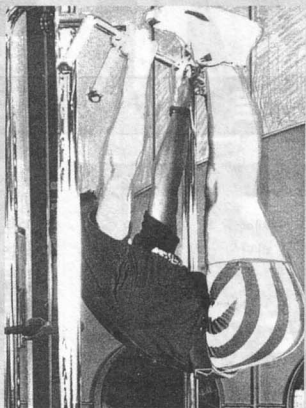
응용 동작

외, 내복사근의 보다 강도 높은 운동을 실시할 경우, 두 발 사이에 아령을 끼우고서 실시하거나 발목에 모래 주머니 등을 차고서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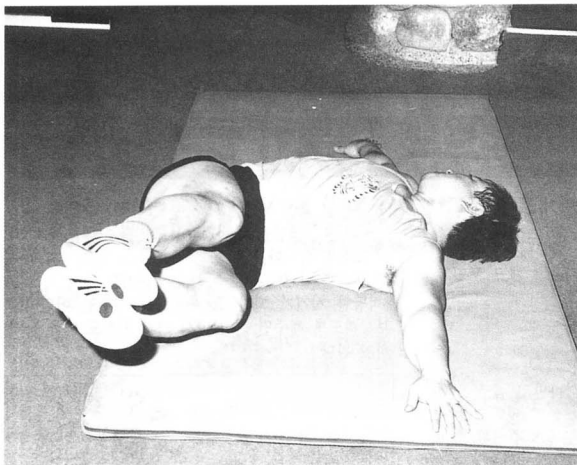
행잉 레그 레이즈의 응용운동



▲평행봉에 팔꿈치를 얹고 다리를 들어 올리면 뒷몸이 받쳐지기 때문에 동작이 흔들리지 않고 쉽게 치를 수 있다.



◀두 발 끝이 손으로 잡은 철봉 바에 닿도록 단숨에 들어 올린 뒤 가능한 천천히 내려 복근에 자극을 준다.



발달 시키는 동작

- 상하체를 트위스트하면서 일어나는 동작. 즉 주먹으로 가격할 때, 또 여러가지의 킥 동작, 돌려차기에서의 파워나 이행력의 증진.

그 외 내복사근의 발달로 허리가 사용되는 어떠한 동작에서도 그 운동을 강력하게 이항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한다.

발달근육

- 외복사근
- 내복사근
- 복직근(아랫부분)

숨 오래 참지말고 위에 음식 없어야

복부 운동할 때 주의사항

복부근육이 하는 일은 윗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며, 또 상체나 하체를 트위스트시켜주는 동작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동작을 하는데 있어서 복부근육 자체가 부상을 입는 경우는 특히 드물지만 자세나 동작이 적절하지 못할 때는 그 상해는 주로 요추부위, 즉 허리부위에 오게된다.

이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부위가 지나치게 펴지도록 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서있는 자세에서는 상체가 뒤쪽으로 구부러지는 동작이나 자세이며,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자세에서는 허리가 바닥에서 지나치게 들려진 자세나 동작이다. 또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는 상체가 너무 위쪽으로 들려지게 되면 요추에 상해를 입을 기회가 많아진다.

효과적인 복부운동을 위해서는 위속에 음식물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운동을 하는 도중에 숨을 오랫동안 참게 되면 혈압을 높이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니 주의할 일이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가라데 KARATE

가라데 어린이 키우는 10가지 체크포인트

감동·예의·즐거움 등 느끼게

일본의 가라데전문잡지인 「월간 가라데도」(11월호)에는 어린이들의 가라데 자질을 키우는 체크 포인트 10가지가 실려 있다. 태권도 지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지 몰라 참고삼아 간추려 본다.

- ①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맛보게 해주고 있는가?
-돈벌이만을 위해서 도장경영을 한다면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한다. 진지한 자세로 가르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느끼도록해 주어야 한다.
- ② 작은 일이라도 약속은 꼭 지키고 있는가?
-작은 약속이라도 어기면 사제지간에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가 무너진다.
- ③ 지도자가 먼저 어린이들에게 인사하고 있는가?
-어린이로부터 인사를 받아 고개만 끄덕여서는 어린이들이 인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사 안하는 아이를 야단치기 전에 지도자가 「잘있었니?」라고 먼저 인사하자.



- ④ 어린이들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가?
-강한 팀의 훈련이라든지 고교나 대학의 훈련을 보여준다. 수준 높은 전국대회도 보여주어 어린이들에게 「나도 저런 수준의 선수가 되고싶다」는 의욕을 갖게 해준다.
- ⑤ 남의 흉을 보고 있지 않는가?
-어린이 앞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할 일이다.

- ⑥ 무조건적인 부담감을 주고 있지 않는가?
-말하는 긴장감은 좋지만 지나치면 주눅이 들게 되니 조심할 일이다.
- ⑦ 후배를 잘 보살피도록 하고 있는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 아이보다 후배인 어린이를 보살피도록 해주면 신이 나서 자기 자신도 더욱 노력하게 된다.



- ⑧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지지만 하고 있으면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능력을 잃게 된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조용히 지켜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한다.
- ⑨ 지나치게 주의를 주고 있지 않는가?
-10가지 결점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가장 큰 잘못만 주의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타이르도록 할 일이다. 너무 지나치게 주의를 주면 오히려 혼란에 빠질 뿐이다.



- ⑩ 가라데의 즐거움과 엄함을 가르치고 있는가?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겨루기에서 이기는 기쁨, 품새를 익힌 기쁨, 친구를 사귀는 기쁨, 여럿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기쁨, 또

힘든 일을 이겨냈을 때의 기쁨 등을 느끼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복싱 BOXING

미 해병대 신병훈련서 복싱 제외

훈련 중 사고가 속출하자

미국 해병대는 맹훈련으로 이름이 있다. 그 미국 해병대가 얼마전 격투기 훈련프로그램에서 복싱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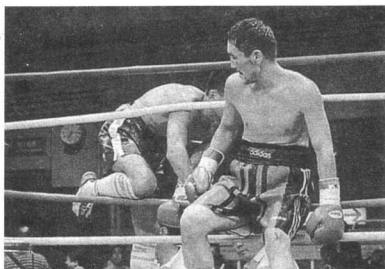
미국 해병대는 1989년 이래 격투기의 훈련프로그램에 복싱을 채택해왔지만 지난 2월 신병이 복싱트레이닝 중 머리에 입은 부상으로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는데다 5월에도 27살의 신병이 복싱 트레이닝 중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잇달았기 때문에 복싱 트레이닝은 중지하기로 됐다.



▲지난 8월 23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처음으로 치러진 여자복싱경기에서 여자라이트급 챔피언 크리스티 마틴(미국·오른쪽)이 이슬라 거글러(미국)를 3-0 판정으로 물리쳐 챔피언 벨트를 지켰다.

통상 신병은 글로브 마우스피스, 헤드기어, 게다가 급소를 보호하는 프로텍터를 착용, 15초 라운드를 3, 4회 치러 이를 동안에 기초적인 펀치 치는 법을 배우도록 돼 있었다.

미국 해병대에서 복싱을 교과과 채택한 이래 12만명 이상의 신병이 트레이닝을 받았으나, 지난 2월에 희생자가 나오기 전까지 사망사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



▲몽골의 트오돌바토나산(오른쪽)은 일본의 데이켄체육관에 입문해서 지난 9월 26일 데뷔전을 갖고 마루야마 유지를 4회 TKO로 물리쳤다. 경기가 끝난 뒤 링을 내려가는 마루야마를 위해 로프를 벌려주는 아량을 보여 주기도.

영국 자치단체서 잇단 복싱 금지령 영국 복싱관리위원회는 불쾌감 표시

영국의 자치단체가 잇달아 복싱금지령을 내리고 있다.

얼마전 영국 맨체스터시의 바리구의회는 찬성 23반대 17로 프로복싱 금지조례를 가결했다.

이 결과 바리구 안에서 프로복싱 경기는 전면 금지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그리넛지구가 조례에 의해 프로복싱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플라이급 챔피언 에디 루이스는 바리구 출신이기 때문에 타이틀방어전을 바리구에서 갖기로 예정하고 있었으나 프로복싱 금지조례 성립으로 대전장소를 바꿀 수 밖에 없었다.

바리구의 복싱금지 조례 성립에 대해 BBBC(영국복싱관리위원회)는 『프로복싱을 금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마추어 복싱경기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프로이건 아마추어이건 편치는 편치다. 무엇을 논의했는지 알 수 없지만 금지의 근거가 애매모호하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전 세계랭커 몬탄테스 사망 KO패 당한 뒤 수술도 헛되이

라이트급에서 세계랭킹에 끼었던 일이 있는 조니 몬탄테스(미국)가 지난 9월 26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KO패 당한 뒤 병원에 실려가 사망했다. 28살이었다.

몬탄테스는 상대의 펀치를 맞고 다운됐을 때 머리를 캔버스에 세계 부딪혔으며 병원에 실려가면서 혼수상태가 계속돼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다. 몬탄테스는 지난 50년 5월에 데뷔, 그동안 28전 26승(21KO)2패의 전적을 남겼다.

알리의 기념품 경매에 붙여져 본인은 「박물관에 두면 좋을텐데…」

무하마드 알리의 파란에 찬 복싱인생을 장식하는 트로피, 글로브, 가운 등의 기념품이 10월 19일 로스앤젤러스의 크리스티즈에서 경매에 붙여졌다.

경매에 나온 물건은 57년 골든글로브상 우승트로피, 74년 조지 포먼과 대결했을 때 입었던 가운, 그리고 무하마드 알리로 이름을 고치기 전 캐시우스 클레이의 이름으로 받은 라이선스 등 알리의 21년 복싱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물건 3,000점 남짓이다.

얼마 전 제1회 무하마드 알리컵 국제아마추어 복싱대회 때문에 고향인 캔터키주 루이즈빌을 방문한 알리 「모두가 내 물건을 훔쳐가버렸다. 돌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라고 본심을 드러냈다.



▲해비급 세계챔피언으로 이름을 떨쳤던 무하마드 알리가 아프리카의 코트디보와르의 리베리아 난민수용소에서 고아를 안아 입맞추고 있다.

「사실은 박물관에 전시해 두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도 되니까 그것도 좋지만…」

크리스티즈는 수익금의 10%를 박물관에 기부하기로 했으나 알리의 부인 로니는 크리스티즈로부터의 기부를 사절했다.

로이 존스 2세에 올림픽 공로상 '88 서울올림픽 판정패는 그대로

'88 서울올림픽에서 한국의 박시현에게 라이트 미들급 결승에서 판정패 당한 미국의 로이 존스 2세(현 WB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가 9월 25일 뉴욕에서



▲'88 서울올림픽 라이트 미들급 결승에서 미국의 로이 존스(왼쪽)는 한국의 박시현에게 역올한 판정패를 당했다고 주장해왔으나 판정반복 대신 올림픽 공로상을 받게 됐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림픽 공로상을 받았다.

'88 서울올림픽 당시 19살이었던 존스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결승에서도 박시현을 압도했으나 5명의 부심은 3-2로 박시현의 승리로 채점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IOC는 '88 서울올림픽 경기의 판정에 관해서는 부정행위가 개재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판정결과를 뒤집지는 않았다.

이 올림픽 공로상은 1947년부터 비롯된 것으로 매년 10~14명이 표창을 받고 있다. 수상자의 대부분은 스포츠선수 이외의 관계자로, 더구나 현역선수의 수상은 매우 드문일이다.

존스의 경우는 복서로서의 뛰어난 활약에 겹쳐져 복싱활동 틈틈이 청소년 비행방지 활동에 협력한 공로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를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올림픽공로상 수상으로 존슨의 불운은 어느 정도 보상받게 될 것이라 여겨졌지만 본인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 10대의 9년을 바쳤는데도 판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니...』라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유도 JUDO

국제유도연맹, 드디어 컬러도복 채택

찬성 172표, 반대 38표로

드디어 유도가 공식적으로 컬러도복 착용을 채택했다.

10월 8일 파리에서 끝난 IJF(국제유도연맹) 총회는 컬러도복을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 공식 국제경기대회에서 착용토록 찬성 172표 대 반대 38표로 가결했다. 그동안 유도의 종주국인 일본은 「흰 도복은 유도의 정신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컬러도복 착용을 반대해왔다.

그러나 흰색과 푸른색을 착용하면 어떤 기술이 걸렸는지 알기 쉽고 심판의 판정에도 도움이 되는 데다 TV화면에도 잘 받는다해서 유럽유도연맹 등이 주동이 되어 컬러도복 채택은 꾸준히 추진돼 왔다.

일본은 「컬러도복을 채택하면 선수 각자가 적어도 흰색, 푸른색 각각 한벌씩을 장만해야 되므로 넉넉치



▲누르기 한판의 시간이 30초로부터 25초로 단축되어 98년 1월부터 실시된다.

못한 나라의 선수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까지 곁들여 컬러도복 채택을 반대해왔던 일본의 주장은 이번 IJF 총회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말았다.

박용성 IJF 회장은 「컬러도복 채택은 11년 동안 노력의 결실이다. 유도복 컬러화로 유도는 이제 지구촌 가족에게 더욱 친숙한 스포츠로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동안 일본이 반대해왔으나 일본도 세계 유도인의 희망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고 컬러도복 채택에 대해 소감을 말했다.

한편 IJF 총회는 일본이 제출한 체급의 체중구분 변경안을 가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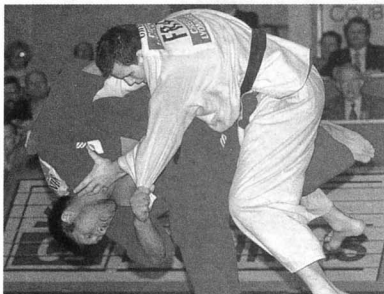
개정된 체중구분은 무거운 체급에서의 체중차를 남녀 모두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가장 가벼운 체급인 남자 60kg급과 여자 48kg급, 그리고 여자 52kg급은 현행대로이고 무제한급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새로운 체급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개정된 체급(괄호안은 현행)

▲남자=60kg급(60kg급), 66kg급(66kg급), 73kg급(71kg급), 81kg급(78kg급), 90kg급(86kg급), 100kg급(95kg급).



▲일본이 강력히 반대해왔던 유도의 컬러도복 착용이 파리에서의 IJF(국제유도연맹)총회에서 가결됐다. 내년 1월부터는 흰색과 백색도복을 걸친 유도선수들의 대결을 보게 된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100kg이상급(95kg이상급)

▲여자=48kg급(48kg급), 52kg급(52kg급), 57kg급(56kg급), 63kg급(61kg급), 70kg급(66kg급), 78kg급(72kg급), 78kg이상급(72kg이상급).

Uf 총회는 보조적 언어로부터 일본어를 빼고 스페인어와 아랍어만 남기기로 결의했다.

Uf의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그 다음에 보조적 언어가 인정되어 공식문서를 그 말로 번역되는 것이 허가되어 있다.

그러나 잇풍(한판), 와자아리(절반) 등의 경기 용어

는 일본어를 그대로 쓴다.

또한 Uf 총회는 일본이 반대하고 있던 누르기한판의 시간을 30초에서 25초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누르기 25초의 「절반」은 20초로 20초의 「유효」는 15초로 각각 5초씩 단축됐다.

누르기에 들어가서 30초 동안이나 움직임이 멈추는 것은 TV에 좋게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 이유라고, 실시는 내년 1월부터.

검도 KENDO

좋은 기술로 공격해오면 칭찬해주라

엄한 가르침 올바른 지도 아니다 제자들 칭찬으로 배장 단련

일본의 검도 전문일간지인 「검도일본」(11월호)에는 지도자가 어떤 정신적 자세로 제자들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 실려 있어 여기에 간추려 본다.

-가이 기요하루(57·甲清治)8단은 미야자끼(宮崎)현 경찰의 검도사범이다.

가이사범이 미야자끼 현경찰의 검도특별훈련팀 감독이 되어 2~3년쯤 지났을 때의 일이다.

「전일본검도연맹의 지방강습회가 미야자끼에서 있었습니다. 선수들과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강습이 끝난 뒤 파티가 열렸습니다. 전일본검도연맹으로부터 파견된 강사 이마이 사부로 선생님이 우리 선수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불러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선수 개개인에게 개인적인 지도를 하고 계시나 보다도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이마이 선생님이 『가이 선생. 잠깐만』이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마이 선생님 곁에 갔더니 『아까부터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묻고 있었는지 아십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무엇을 물어보셨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이마이 선생님은 『나는 가이 선생이 훈련 도중에 제자들로부터 맞았을 때 "마있다(졌

다)』라고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가이 선생은 단 한 차례도 "졌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라는 것일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가이 선생. 당신네 팀이 이토록 뛰어난 선수들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경찰검도대회에서 우승 못하는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그걸 당신은 모르고 있어요.』



▲「제자를 칭찬 해주는 가운데 자신도 배우게 된다」는 가이 8단이 도장에서 명상에 잠겨있다.

전문지들이 전하는 세계격투기 소식

「.....」

『지도입니다. 지도. 그들과 훈련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정말 좋은 기술로 당신을 때리면 마음속으로부터 “마있다(졌다)”라고 말해 “좋은 기술이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뽐아나게 해줍니다.

엄하게 가르치는 것만이 지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있다” 한마디. 그것이 그들에게 큰 자신을 있게 해줍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습시다. 그때부터입니다. 하루에 몇차례는 “마있다”, “마있다”라고 하게 됐죠. 그러자 제자들이 『선생님 제발 그 “마있다”는 그만 두십시오』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가이 사범은 “마있다”를 그만두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마있다”를 말하면 그 시점에서 죽도를 거둬들였다.

「좋은 기술을 냈을 때의 이미지가 그대로 그들에게 남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또 한차례 거르면 똑같이 공격해 오더라도 이번에는 이쪽에서 준비가 되어있으니가 간단히 막아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처럼 파악하게 된 좋은 기술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시간이 짧더라도 좋은 기술로 맞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있다”도 몇해 전부터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답니다.

「8단이 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공방전 가운데 한순간 상대의 움직임에 이쪽이 말려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마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직, 치지 않았는데요.”라고 어리둥절해하지만 『아니 치지는 않았어도 너의 움직임에 내가 순간 놀라서 마음이 움직여버렸으니 승패는 가려진 거야. 그래서 “마있다”라고 말한거야.』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 방법이 배짱을 단련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자신의 마음이 움직였다고 느낀 시점에서 바로 죽도를 거둬들이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뚜렷이 인식하게 되죠.

같은 경기전개로 같이 마음을 움직여 버렸다 해도 한차례 한차례 그 때마다 인식하게 되니까 되풀이 되면 몸이, 아니 이 경우는 배짱이라는 표현이 좋겠습니다. 단련이 단련됩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그 전보다는 마음 움직이는 일이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목 끄는 검도만화 「질풍노도」 과연 검도부를 자극할 것인지

만화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 일본에서는 지난날 「거인의 별」이라는 만화가 인기를 모아 많은 소년들이 프로야구를 동경하게 됐고 「에이스를 노려라」라는 만화 때문에 테니스부에 여학생들이 몰려 들었다.

축구붐도 「붉은 피의 일레븐」, 「캡틴 쯔바사」라는 만화에 자극받아 축구소년이 급속히 늘어났고, 「슬램덩크」는 농구붐을 불러일으켰다.

오랜만에 일본의 「주간 빅오믹스 피리츠」라는 청소년 주간지가 검도만화 「질풍노도」를 연재하기 시작해서 청년 독자들뿐만 아니라 검도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만화를 그리는 모리파 겐지(36)는 실제로 검도를



▲검도만화 「질풍노도」.



▲「질풍노도」는 뛰어난 그림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해본 경험이 있는 데다 미술전문학교도 나와 그림이 매우 실감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에 내가 그리던 작품은 10대의 팬들이 많았지만 검도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더니 40대의 사람들로부터도 자신의 체험담이라든지, 또다시 검도를 시작해보고 싶어겠다는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검도는 만화의 소재로 알맞습니다. 예전대 스키는 인기가 대단했지만 스키만화라는 것은 없어요, 스키에는 드라마가 성립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검도를 소재로 삼을 때 드라마를 엮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검도만화도 크게 히트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도만화가 검도붐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지 궁금하다.

집중연재 상

스포츠와 경영

이기기 위한 리더십 ①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스포츠와 경영=이기기 위한 리더십」은 태권도 지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져 「월간태권도」에 단기 집중 연재를 합니다. (편집실)

스포츠 감독에게 배운다

월드컵축구 신드롬과 차범근 감독

차범근 감독이 사상 최약체라 일컬어졌던 한국 축구 대표팀을 부단한 노력과 빈틈없는 분석으로 강화시켜 '98 프랑스월드컵 출전권을 따냄으로써 감독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스포츠에 있어 감독의 역할은 기업에 있어 경영자의 역할과 유사함.

●스포츠를 기업경영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으며, 스포츠에서 이기기 위한 감독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성공하기 위한 기업경영자의 상을 그려볼 수 있음.

- 스포츠는 기업경영에 비해 상황이 단순하고 규칙이 명확하며 승패의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음.

- 승률이 높은 감독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경영자의 리더십 요건을 유출할 수 있음.

감독과 경영자의 역할 비교

	감독	경영자
목표	팀의 경기력 극대화를 통한 경기에서의 승리	기업의 능력 극대화를 통한 경쟁에서의 승리
전략	작전수립	전략수립
교육	선수 트레이닝	인재육성
정보	현지조사 및 비디오 시청을 통한 분석	정보의 수집 및 활용
조직 분위기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	강한 기업문화 형성

스포츠 감독의 승리전략

다양한 감독 유형

●승리하는 감독들의 유형은 스포츠 종목, 팀의 성격 및 구성 배경, 감독 자신의 성격과 성장해 온 환경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지만 크게 「기관차형」과 「로마전차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기관차형」이나 「로마전차형」중 일방적으로 어느 쪽이 우월하다는 평가는 내릴 수 없지만,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이기는 감독이 되기 어려움.

기관차형의 승리전략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리더십>

●기관차형의 감독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팀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여 선수들의 정신력을 극대화함.

- 해태의 김용룡 감독은 투타(投·打)에서 간판급 선수였던 선동열과 김성현이 빠진 96년 시즌초 “이제까지의 해태신화가 두 선수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는 말로 그 해 우승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선수들에게 제시함.

- 83년 멕시코 신화는 “한국 축구가 세계의 다른 축구 강국에 결코 뒤질 수 없다”는 박종환 감독의 뚜렷한 목표가 선수들에게 강하게 주입된 결과임.

- 일본 프로야구의 히로오카 감독은 주변과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80년대 초반 최악의 야쿠르트를 상위에 랭크시켰음.

<승리의 원동력, 혹독한 훈련>

●승리하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혹독하고 강인한 훈련을 반복함.

- 김완기, 황영조, 이봉수를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로 키워낸 정봉수 감독은 새벽 5시에서 저녁 9시까지 하루 50~80km를 달리게 하는 훈련을 요구함.

<정봉수 감독의 혹독한 훈련>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 황영조는 “자동차 바퀴 밑으로 뛰어들고 싶었지만 서슬퍼런 감독의 얼굴을 생각하며 뛰었다”라고 훈련의 혹독함을 설명함.

- 93년 슈투트가르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리우동, 쿠윤사, 왕준샤 등으로 여자 중장거리를 제패한 중국 「마군단」의 마준런 감독도 강압적이고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함.

<엄격한 선수 관리>

●선수들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태구단의 엄격한 상하관계>

11년 동안 팀의 간판투수이자 국내 최고투수였던 선동열이 “지금까지 감독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모두 합해 세 번 뿐”이라 말하자 김성현은 볼멘 소리로 “나는 지금까지 딱 두 번”이라 응수한 적이 있으며, 야구천재 이종범은 아직도 선배들의 마실 물을 챙긴다고 함.

팀의 규율을 숭순수법함.

- 박종환 감독은 프로축구 일화 감독시절 시즌 중에 선수들의 음주를 금하고 애주가인 그 자신부터 술을 입에 대지도 않음.

●선수들 개개인의 불협화음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며 엄격한 선수관리로 선수들의 확고한 신뢰를 얻어냄.

- 스타선수들과 무명선수와의 대우에 차별을 두지 않고 단지 매경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평가함.

- 히로오카 감독은 선수들의 체중까지 관리함은 물론 일부 선수에게는 저칼로리 현미밥 식단까지 짜주며 선수 수명을 연장시킴.

- 감독과 선수, 선수 상호간의 엄격한 上下관계로 팀의 질서를 유지함.

혹독한 훈련 엄격한 관리

기관차형

로마전차형

체계적 훈련 과학적 운영

로마전차형의 승리전략

<민주적 비전제시에 의한 리더십>

●로마전차형의 감독들은 승리를 위해 팀이 지향해야 할 뚜렷한 비전을 팀구성원 전체의 공감을 통해 유도하며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함.

- 차범근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 취임 이후 월드컵 본선 자력진출이라는 뚜렷한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를 마칠 때마다 다음 경기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선수들의 정신력을 무장시킴.

· 우즈베키스탄전 승리 후, “일본을 적지에서 반드시 꺾어야 한다.”

· 일본전 역전승 후, “UAE전이 남았다. 기뻐하기는 이르다.”

· UAE전 완승 후, “이제 간신히 반환점을 넘었다. 어웨이 경기가 만만찮다.”

· 우즈베키스탄전 승리로 본선 진출이 거의 확정된 후 “본선진출 여부를 떠나 한·일전은 절대로 질 수 없다. 이제 본선 16강 무대가 우리의 목표다.”

- 79년 샌프란시스코 49ers의 헤드코치로 부임한 빌 윌쉬 감독은 선수 각자에게 팀이 기대하는 명확한 비

- 89년 시카고 볼스의 헤드코치가 된 필 잭슨 감독도 「비전이 강력한 리더십이 근원이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스타군단 시카고 볼스를 지휘함.

<승리의 원동력, 체계적 과학적인 훈련과 경기운영>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는 완벽한 연습으로 실전에서 즉각적인 대응력을 보이도

열린 대화 바탕으로 선수관리 감독과 선수사이, 강한 신뢰감을

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8년 동안 세 번의 슈퍼볼을 차지하는 80년대의 최고의 팀으로 만든.

록 함.

- 빌 윌쉬 감독은 분단위의 세세한 훈련계획을 가지고 경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각의 경우에 여러 대

..... VICTORY 전략

전 략	내 용	경기상황	연습상황	I Q	E Q
VISION (명확한비전)	●팀의 목표를 뚜렷이 함으로써 팀 전력의 극대화 ●선수개개인에 비전 제시를 통한 캐리어 패스(career path)개발		○	○	○
Intelligence (치밀한 분석과 배우는 분위기)	●상대방전략에 대한 치밀한 분석/전략개발 및 훈련 ●경기전 완벽한 전략의 수립 ●팀원간에 서로 벤치마킹하는 분위기 조성		○	○	
Consideration (팀원에 대한 배려)	●선수 개개인에 대한 감독의 자상한 배려 ●팀내에 형성되는 따뜻한 동료애		○		○
Trust (확고한 신뢰)	●선수와 감독, 선수간에 형성되는신뢰 ●감독을 존경(경외)하는 마음가짐	○	○	○	○
Outlook (정확한 직관력)	●분위기에 들뜨지 않고 냉철하게 경기를 조망 ●경기상황의 정확한 파악과 신속한 대응	○		○	
Resolution (결단력)	●고비의 순간마다 승부를 띄우는 결단 ●주위와의 흔들림없이 밀어 붙이는 추진력	○		○	○
Yearning (강한 승부욕)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승부욕 배양 ●선수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의 내재화(기세)	○			○

<시카고 볼스 선수들간의 애정>

90년 시카고볼스가 필라델피아 76ers와의 플레이오프전을 어렵게 치르고 있을 때 팀의 기동선수 중의 하나인 스카티 피펜이 부친상의 비보를 접함. 장례식을 마치고 우울한 심정으로 돌아온 그를 팀의 모든 구성원이 둘러싸고 그의 아버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함. 그날 그는 29점이라는 고득점으로 팀승리의 주역이 됨.

응전락을 완벽하게 연습시킨.

- 차범근 감독은 다음 상대방의 전력을 직접 탐사하고 이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경기전 상대방을 이기는 완벽한 전략을 수립함.

●특정 스타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경기운영으로 팀 전체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고자 함.

- 시카고 볼스의 헤드코치로 취임한 필 잭슨은 마이클 조던에게 팀 플레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되도록 다른 선수의 득점을 도우라는 지시를 내림.

- 또한 그는 마이클 조던 이하 모든 선수에게 동등한 경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선수가 팀의 승리를 위해 똑같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를 고취시킴.

- 빌 윌셔 역시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는 팀은 그

선수가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간단한 논리로 무장을 하고 팀을 운영함.

●선수 개개인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훈련과 전략을 구사하며 적시적소에 선수를 배치함.

- 한·일전 후반에 체력이 떨어진 일본 진영을 교란하기 위해 발빠른 서정원을 교체멤버로 투입, 동점골을 이끌어냄.

-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정경기에서 막내적인 장대일을 최종 수비수라는 막중

한 위치에 배치하고 홍명보를 게임메이커로 내세워 일방적인 승리를 거둠.

<열린 대화를 바탕으로 한 선수관리>

●헤드코치를 포함한 팀 구성원간의 열린 대화와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강조함으로써 팀의 일체감을 조성함.

- 헤드코치와 기타 코칭스태프, 그리고 선수들간 대화의 장을 열어 놓고 언제라도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며 이를 즉시 팀 운영에 반영.

- 같은 팀구성원들이 서로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과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 이를 같이 극복하게 함.



▲해태 김응룡 감독



▲이광환 감독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며 이를 즉각 반영하는 행동을 보임.

- 카자흐스탄과의 원정경기에서 외의의 무승부를 이룬 후 차범근 감독은 경기장의 잔디상태와 800m고원이라는 특수 환경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함.

- 이후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정경기 전에는 자신이 직접 선수들과 운동장을 뛰는 열성을 보임으로 선수들의 신뢰를 회복함.

스포츠승리의 공통된 전략 : VICTORY

●승리하는 감독들에게는 공통된 요소가 존재하는데, 이를 「VICTORY 전략」으로 묶어볼 수 있음.

- 연습상황에서는 VIC를 근간으로 팀을 이끌고 실전시에는 ORY를 중심으로 승리를 향해 매진함.

- IO라는 이성적 판단(IQ)과 CY라는 감성(EQ), 그리고 이들 사이의 VR을 조화시킴.

- 연습과 실전 사이,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는 강력한 T(신뢰)를 바탕으로 함.



▲차범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여자 핀급



경희대의 장정은(오른쪽)이 은광여고의 강지현에게 오른손 주먹공격을 가했으나 강지현이 3-1로 판정승

'97 전국 남녀 우수선수 선발대회

열전의

여자 플라이급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교양중고의 오성숙(왼쪽)과 한체대의 이선영. 4-4 동점에서 공격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오성숙이 우세판정으로 승리.

여자 페더급



성신여대의 전기숙(오른쪽)에게 왼손 주먹공격을 가하고 있는 인천시청의 윤명숙. 전기숙이 2-1로 승리.

현장

올해를 마감하는 '97 전국남녀 우수선수 선발대회'가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국민원에서 치러졌다.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1, 2위를 차지하기 위해 참가선수들이 펼친 열전 현장을 렌즈에 담았다.

여자 밴텀급



결승전이 끝난 뒤 경희대의 이지은(오른쪽)이 용인대의 김병희에게 다가가 가볍게 포옹을 하고 있다.
3-1로 이지은의 승리.

여자 라이트급



전 국가대표인 고양중교의 이선희(왼쪽)가 오늘밤 앞돌려차기 공격을
용인대 이정숙에게 퍼붓고 있다. 5-0으로 이선희가 이겼다.



여자 웰터급



교려대 김미영(왼쪽)이 원발 앞돌려차기 공격을 경희대의 정진영에게 시도했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실패. 김미영이 6-3으로 이겼다.

여자 미들급



성신여대의 강해진(오른쪽)이 웅원대 이희영의 오른발 앞돌려차기에 대해 원발 뒤틀거기를 낮게 깔아서 반격하고 있다. 이희영이 8-3으로 승리.

여자 헤비급



신경현(왼쪽)에게 왼손 주먹공격을 가하는 송곡여고의 윤현숙. 6-3으로 신경현의 승리.

남자부 결승

남자 핀급



경희대 조성민(왼쪽)의 원발 밀어삼차기 공격에 대해 송남대의 박동중이 오른발 뒷차기로 반격하여 득점에 성공. 박동중이 3-0으로 패승.

남자 플라이급



웅인대의 유영택(오른쪽)이 오른발 뛰어뒤통차기를 한체대의 민병석에게 가렸으나 간발의 차이로 실패. 유영택이 5-2로 승리.

남자 페더급



경희대 이두권(왼쪽)의 왼발 앞꿈앞돌려차기가 송곡고 김재만을 위협하고 있다. 이두권이 8-7로 이겼다.



남자 라이트급

남자 밴텀급



실업팀 (주)보성의 김건일(왼쪽)의 오른발 받아차기가 용인대 이동철의 옆구리에 정확히 가격됐다. 김건일이 9-10이란 큰 점수 차로 RSC승을 거뒀다.

남자 웰터급



상무의 김병욱(왼쪽)이 참 오른발 뒷차기를 사이드 스텝으로 피하는 경희대의 김정수. 김정수가 부상으로 1회전이 끝난 뒤 기권.



용인대 OB인 장중오(왼쪽)를 원발 앞돌려차기 공격으로 기적하고 있는 경희대의 류근무. 이번 대회 남자 최우수선수인 류근무가 6-1로 승리.



남자 미들급

틀린채 상태에서 격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경희대 장순호(오른쪽)와
경희대 국춘근 2-0으로 심대인 장순호가 승리.



남자 헤비급

한성고 송대희(오른쪽)의 오른발 뒀치기 공격이 동아대 문태성에게
작렬하려는 순간 4-3으로 문태성이 승리.

PHOTO
NEWS

화보로 엮어 본

태권도계 이모저모



귀국직후 공항에서 노고를 치하하는 홍종수 원로

유럽 3개국 순방시범

지난 10월 9일부터 22일까지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총 20명)이 유럽 3개국 순방시범을 했다.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영국의 대도시들을 돌며 가는 곳마다 큰 환영을 받았다.

특히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국가원수 및 장관, 각계 유명인사가 참관하는 등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고슬라비아는 과거 공산국가시절부터 태권도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등 태권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귀국직후 공항에서의 모습. 정중앙의 흰색 베타마일 맨 이가 단장인 홍종수 원로, 오른쪽이 주무인 박성욱 협회 대리, 왼쪽이 이규형 감독과 최원석 협회 지원부장



미국에서 활약 중인 태권도 유공 사범 100명이 워커힌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문체부 차관보 시절인 96년에 해외유공자 사범 초청사업 입안을 지시하여 성사케 한 최정신 월드컵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재미동포 사범 초청 모국의 정 담복

문화체육부가 후원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초청으로 모국을 방문한 재미태권도 사범들은 지난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여러 행사에 참여하면서 즐겁고 뜻있는 날들을 보냈다.

협회는 이러한 유공사범들의 초청행사가 매우 뜻깊다고 여겨 정례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유공사범들에게 자신의 재서전을 직접 사인하여 증명하는 김윤용 세계연맹총재.



USU의 이상철 회장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이훈주 협회 상임부회장



국기원 식당에서 김운용 총재와 점심을 함께하며 원답을 나누는 유공 사법들.

▶ 맨 왼쪽부터 박연환 사법, 황춘성 협회 부회장, 김유진 사법, 홍중수 원로, 이상철 USIU 회장, 이흥주 협회 상임 부회장, 최창신 월드컵 조직 위원회 사무총장, 이승완 협회 부회장, 김순배 협회 부회장, 정순기 사법.

▼ 태권도계 원로들과 함께 한 재미 유공 사법 100명. 한 가운데가 김운용 총재. 그 오른쪽이 이금홍 세계연맹 사무차장, 왼쪽이 엄운규 국기원 부총재.





▲남자 대학부 페더급에서 충북 유원철(오른쪽)의 대포같은 원발 뒤후리기 반격에 의해 얼굴을 감타 당하는 부산의 유용진.

열전 6일

전국체전



태권도 종합 1위를 차지한 서울팀.

지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경남 마산의 양덕여중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태권도 경기는 각 시도지부 선수단과 가족들, 그리고 일반 관중 등 약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열기가 높더니 사연도 많았으나 경남체육회와 경남 태권도협회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고로 잘 진행되었다.



안산의 원일 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러시아 만피시(중앙아시아 유부강 중심지) 태권도클럽 회원들이 전국체전을 참관하러 왔다. 뒷줄 왼쪽부터 러시아 협회 전 부회장 최명철, 자매결연을 주관한 영복중고 임선영 코치, 김운중 총재, 만피시 클럽 스타 감독 및 그 회원들.



경남 태권도협회가 주최한 태권도 임원 환영연에서 건배를 제의하는 김순배 협회 부회장. 왼쪽부터 이순달 경남협회 회장, 이승환, 이흥주, 김순배, 황춘성 협회 부회장, 이종호 대구시협회 회장.



열띤 응원전을 펼치는 경남선수단.



태권도 경기장에서 자원봉사에 나선 마산시 부녀회 회원들.



경찰무도대회 단체전에서 격전을 펼치고 있는 중앙경찰학교의 이상균(왼쪽)과 부산경찰청의 김주수.



▲김명식 경장이 2선에 걸쳐 특진하도록 지도한 이택명 서울 지방경찰청 사범.

16개 단체 540여명 참가 전국경찰무도대회

제52주년 경찰의 날 기념 전국 경찰무도대회가 10월 17일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개최됐다. 매년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던 지난 80년 이후에는 홀수 년도에만 열리고 있다.

이 대회에는 지방 경찰청과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등 16개 단체 540여명의 현직경찰들이 참여했다.

개인전 1위에는 일계급 특진의 특전이 주어짐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단체전에서 그동안 9연패의 연승행진을 해온 서울지방경찰청이 10연패에는 실패, 부산지방경찰청에 우승기를 넘겨주고 말았다.



경찰무도대회는 태권도 외에도 유도와 검도경기가 펼쳐진다.



열전을 마치고 메달을 수여받은 입상자들



우승기를 수여받는 부산 지방경찰청 태권도팀



장려상을 경북지방 경찰청에 수여하는
노유중 열화 전무이사



8주년 결속의날 기념 전국 경찰무도대회에서 개인부문
우승자임로 일제군 특진의 영광을 안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김영식 경정(서울서초세)



제 23 기 태권도 2급 경기지도자 연수과정

1997. 10. 7 ~ 10. 31

국기원태권도지도자연수원

지난 10월 7일 부터 31일까지 43명의 시범들이 참가한 가운데 2급 경기 지도자 연수가 국기원 연수원에서 있었다.
연수를 마친 뒤 태권도에 관한 논문이 통과하고 2급 지도자 국가검정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이 주어진다.



▲대회에 참가해 열심히 겨루고 있는 외국 어린이들.



대사컵대회를 참관하는 태화운영위원장 이사 부웨이트
대사(왼쪽)와 김운용 세계연맹총재(가운데)

제5회 대사컵대회

15개국서 100여명

페트웨린 전 주한 스위스 대사(52 공인 3단)가 산파역을 맡아 만든 '대사컵대회'가 올해로 5회째를 맞아 지난 11월 7일 국기원에서 치러졌다.

주한 미군 훈련관계로 성인부의 참가가 약간 저조했으나 15개국에서 온 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열띤 경기를 벌여 명실공히 국제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줬다. 대회 종목은 품새와 겨루기 부문으로 나뉘고 아동부와 성인부가 있었다.

태권도 교육 연수회 지도자 58명등 세미나



◀ '지도자의 자질'에 관해 논의하는 이종우 세계연맹 부총재.



▲앞줄 양쪽 입은 이들 중 왼쪽부터 이종관 강사, 이종우 부총재, 김경찬 심판분과 부위원장, 양진방 교수.

지난 11월 8일 한국체육대학에서 한국태권도 교육연구회가 주최한 태권도교육연수회가 있었다. 총 58명의 태권도 지도자들을 비롯한 태권도 관련인사가 참여한 이날 세미나는 국기원 연수원의 이종관 강사가 품새를, 양진방 용인대 교수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종우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 세미나를 가졌다.